

리아호나

커버 스토리:
왜 아담과 이브는 열매를
취했는가?, 8쪽
성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 40쪽
어린 친구들을 위한
포스터



아담은 단지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매우 좋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열매를 취했는데, 그 이유란 여러분과 저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기 위한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있고 필멸의 생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 기쁩니다. 또한 만약 제가 교회 회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저에게 주어지는 성약과 임무에 진실하고 충실하다면,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는 특권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인간을 필멸의 생에 이르게 한 아담의 역할”, 8쪽.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임

제일화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벨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런, 리처드 지 스퀴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린,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라운, 케리 제이 콜먼, 요시히고 가꾸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롬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클리트 네베커 오온, 수잔 브렛, 새나 버틀러, 라이언 카, 린다 스칼 쿠퍼, 라렌 포터 콘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앨빈 레빈, 살리 제이 오데커, 아담 시 울슨, 쥬디스 엠 팔라, 비비안 폴슨, 돈 엘 셀,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제니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외일, 킴벌리 웹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켈렌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처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카비, 타드 알 피터스, 랜달 제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안슨

통 권: 제 478호, 제 43권, 제 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6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ward/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어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말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어, 헝가리어, 힌디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6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January 2006 No. 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주님의 청사진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 8 복음 고전: 우리에게 필멸의 생을 가져다 준 아담의 역할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 18 월포드 우드럼: 신앙을 위해 싸움
아론 엘 웨스트
- 24 음악: 하나님 이루시는 일 *윌리엄 카우퍼, 윌리엄 에이치 브래드버리, 랄프 비 우드워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상호부조회의 목적
- 26 자매들의 행복한 모임 *릴리언 드롱*
- 30 내 인생을 바꾼 공과
- 34 복음의 충만함: 신화의 본질
- 36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선택의지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 44 후기 성도의 소리
*착륙할 곳이 없었다
케네스 비 스미스*
*아버지를 위한 선물 실비아 지라드
문을 열지 말라! 재닛 던*
- 48 애독자 편지



26 자매들의 행복한 모임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리아호나를 사용하여 만이나 가정에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편안함”,

10쪽: 가족 중 한 사람에게 경전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나누도록 부탁한다.(마태복음 25:40; 모사이야서 2:17~18) 영이 지시하는 대로 본 기사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 속한 가족에게 도움이 될 과제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신화의 본질”, 34쪽: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조셉 스미스-역사

1:15~20) 조셉 스미스가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들에 대해 토론한다. 가족들과 이 기사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 각 부분을 사용해

신화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선택의지”, 36쪽: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는 왜 항상 옳은 결정만을 내리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해 보도록 한다. 그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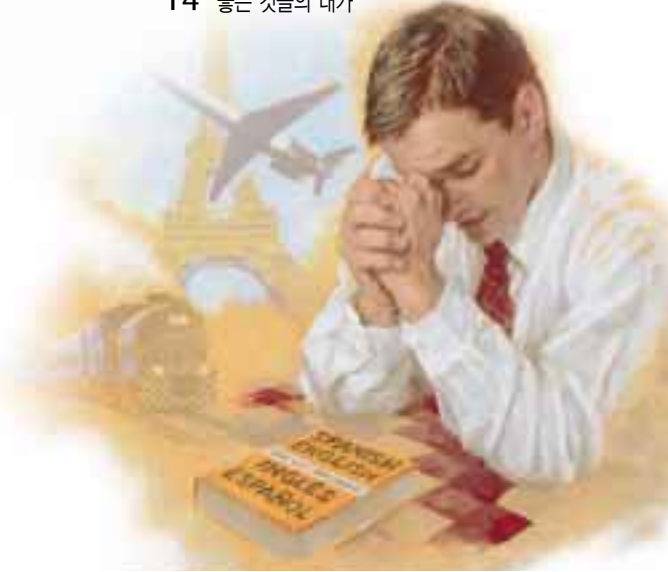
윌포드 우드럽 장로, 필리포 피스트루치

런던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33세의 윌포드 우드럽은 그의 아내 피비로부터 화가에게 초상화를 그려 달라고 하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스트루치 씨가 내 마지막 초상화를 그렸소. 초상화가 나와 정말 똑같다고 그가 말하더군.” 최근에 복원된 이 초상화는 윌포드 우드럽의 알려진 모습 중 가장 오래 전 모습을 보여 준다.

청소년

- 10 모잠비크의 편안함 벤자민 토마스 케리스
- 14 좋은 것들의 대가 카를로스 이 아귀에로 장로
- 17 즉각적인 응답 응고지 에프 오코로
- 29 아이디어 목록: 모든 사람을 포함함
- 40 성전에 대해 이야기함 새나 버틀러
- 43 포스터: 여러분의 표준이 낮아지고 있습니까?

14 좋은 것들의 대가



친구들: 어린이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높은 길을 걸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친4 경전에 있는 약속들
린다 매글비
- 친6 월포드 우드럽 회장의 생애에서: 섭리에 의해 구조됨
- 친8 2006년 나의 목표
브리트리 쉐셀라
- 친10 친구 사귀기: 페루
트루히요의 아벨과 카밀라 레온 시푸엔테스 마빈 케이 가드너
- 친13 심심풀이: 경전 인물
- 친14 용감하게 행함 샤르메인 거블러 위노크



친2 높은 길을 걸으십시오

삽지: 어린이 용

함께 나누는 시간 포스터: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거예요-그분들은 약속을 꼭 지키시니까요.

표지

앞: 삽화, 제이 브라이언트 워드 작. 뒤: 사진: 스티브 뷰너슨, 모델이 포즈를 취함.

친구들 표지

삽화: 셀 벨루토, 유제니오 마토찌.

대답을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인용문을 사용하여 토론한다. 가와다 형제의 이야기를 읽고, 왜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를 토론한다.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여러분이 받았던 축복들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들을 나눈다.

“성전에 대해 이야기함”, 40쪽: 성전 사진을 보여 주고, 가족들이 각각 성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 본다. 가족들로 하여금 우리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보도록 한다. 기사에서 몇몇 질문들을 선택하여 가족들이 그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나누도록 한다. 그들의 대답을 기사에 있는 제안들로 보충한다.

“높은 길을 걸으십시오”, 친2쪽: 가능하다면 높은 곳에서 경치가 내려다 보이는 길로 운전하거나 걸어 간다. “성취와 행복으로 인도하는 높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토론한다. 그곳에 있는 동안, 가족들이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성신, 44, 친10쪽
가르침, 1, 30쪽	성전 및 성전 사업, 40, 44쪽
가정 복음 교육, 7쪽	순종, 14, 친2쪽
가정의 밤, 1쪽, 친10쪽	시련, 14, 44쪽
간증, 18, 30쪽	신앙, 2, 친2쪽
개종, 14, 18, 30쪽	신화, 24, 34쪽
겸손, 43쪽	아론 신권, 친10쪽
경전 공부, 친4, 친13쪽	안식일, 36쪽
구약, 8, 36쪽	약속들, 친4쪽
구원의 계획, 8, 36쪽	용기, 친14쪽
기도, 17, 44, 친2쪽	우정, 29쪽
모범, 2쪽	월포드 우드럽, 18, 친6쪽
목표, 친8쪽	음악, 24쪽
방문 교육, 25쪽	자애, 2쪽
배움, 26, 30쪽	준비, 친10쪽
보호, 44, 친6쪽	초등학교, 친4쪽
봉사, 2, 10, 26쪽	침례, 친10쪽
상호부조회, 25, 26쪽	타락, 8쪽
선교 사업, 10, 14쪽	필멸, 8쪽
선지자, 18, 친6쪽	
선택의지, 36쪽	



주님의 청사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예 수께서 오래 전 먼 곳에서 사람들 가운데 성역을 베푸셨을 때, 그분께서는 종종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듣는 사람들의 삶을 집 짓는 일과 관련지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흔히 “목수의 아들”로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스스로 분쟁하는 …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²라고 단언하셨습니다. 후에 그는 “보라,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란의 집이 아니니라. 주 하나님이 이르노라”³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832년 12월 2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⁴

우리 자신이 영원을 통해 살게 될 집을 현명하고 올바르게 짓기 위해 이보다 더 적절한 청사진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영원한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있어 견습공이지 숙련공이 아닙니다. 훌륭한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신 가르침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⁵

우리 각자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아들과 딸임을 기억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이 원자재의 가치를 인정하십니다.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⁶ 그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목적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단지 그분에 대한 신앙을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노력을 지도해 주실 교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말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⁷

경전은 예수님에 대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거룩한 경전의 한 구절은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에 대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⁹셨다는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영원한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 견습공이지 숙련공이 아닙니다. 훌륭한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원문: 사진 촬영: 스티브 만딘스, 모렐리티에 포즈를 취함, 복서할 수 있음; 오본족: 사진 촬영: 부니스 포드그라피, 제티 이미지

믿는 자들의 본

바울은 그가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과, 동시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¹⁰라고 생각하거나 묻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답변은 영감 어린 권고들입니다. 그의 지혜로운 권고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¹¹

매우 실질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숙한 가르침을 살펴봅시다.

첫째, 말에서 본이 되십시오. “너희 말은 서로 교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되게 하라”¹²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주일학교 찬송가의 권고를 기억하십니까?

친절한 말들은 추억 속에 살며
햇빛 영원히 비치리
우리 맘에서 솟아 나오는
친절한 말을 합시다.¹³

메리 보이슨 윌의 의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1913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돈 하비 윌과 결혼했습니다. 돈이 103세의 일기로 그녀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은 81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교회 소식 기사에서 그녀는 그들의 긴 수명과 결혼 생활을 친절한 말을 한 덕택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불친절한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¹⁴

둘째, 대화에서 본이 되십시오. 198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헝클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 말은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을 더럽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 습관을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변화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번에 여러분이 잘못된 줄 알고 있는 말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멈추십시오. 해야 할 말을 다른 방법으로 말하십시오.”¹⁵

프랑수아 드 라 로슈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별 있고 대화하기 즐거운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¹⁶

셋째, 사랑에서 본이 되십시오.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¹⁷라는 아름다운 진리가 나옵니다.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자연 재해에 대해 교회가 신속한 도움을 주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흡족합니다. 우리 조직은 자주 그러한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 지역에 첫번째로 도착해서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관대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다른 조직들도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모로나이는 그의 아버지 물몬이 하신 몇 가지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뎌요.”¹⁸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1870~1951)은 일생 동안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교회는 유럽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낼 따뜻한 옷을 모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기 위해 해롤드 비 리 장로님(1899~1973)과 매리온 지 롬니 장로님(1897~1988)은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을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복지 센터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원들이 이 운동에 후하게 응해 준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기증된 옷가지와 신발들을 포장하는 일꾼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스미스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스미스 회장님은 자신의 새 외투를 벗어서 “이것도 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그분께 “안 됩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날씨가 춥습니다. 외투를 입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 회장님은 외투를 받지 않으셨고 그의 외투는 다른 물품들과 함께 밤이 깊고 어두우며 음식과 옷이 턱없이 부족한 유럽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윽고 원조 물자가 도착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큰 소리로 뿐만 아니라 은밀한 기도로도 표현되었습니다.

넷째, 영적으로 본이 되십시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¹⁹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열일곱 살에 미 해군에 입대했고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훈련소로 갔습니다. 처음 3주 동안 훈련병들은 해군이 그들에게 살아 남는 방법을 훈련시키기보다는 마치 그들을 죽이려 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샌디에고에서의 첫 일요일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장교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모두 교회에 간다” 우리는 훈련장에 줄을 섰습니다. 장교는 소리쳤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디카터 캠프에서 모인다. 행진 앞으로! 세 시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많은 숫자가 행진해 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유대교인은 헨리 캠프에서 모인다. 행진 앞으로! 세 시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전보다는 적은 숫자가 이동했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머지 개신교인들은 파라거트 캠프에 있는 극장에서 모임을 갖는다. 행진 앞으로! 세 시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때 제 머리 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몬슨, 너는 천주교인이 아니야, 유대교인도 아니고 개신교도도 아니야. 저는 그냥 서 있기로 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 옆을 행진해 간 듯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장교가 제 앞에서 했던 말 중 가장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네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네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 훈련장에 저 외의 다른 사람들이 제 뒤에 서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몰몬입니다”라고 합창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굽적이며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서 모임 할 장소를 찾는다. 세 시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행진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노래의 리듬에 따라 보조를 맞추며 행진해 나갔습니다.

용감하게 몰몬이 되라
용감하게 홀로 서라
용감하게 확고한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용감하게 전파하라

다섯째, 신앙에서 본이 되십시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스티븐 엘 리차드 장로님(1879~1959)은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신보다 더 높은 권능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인간이

해

롤드 비리
장로와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 그리고 매리는 지
롭니 장로가 일꾼들이
다량의 기부된 옷과
신발들을 포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스미스 회장은 그의 새
외투를 벗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보내 주게.”





여

러 해 전에
저는 와이오밍
주 스타

밸리에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어린 시절
축복을 받았거나, 확인과
성임을 받았거나,
성별되었거나, 개인적으로
상당 받았거나, 또는 다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과 고귀한 목적이 자신보다 더 높은 권능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는 인류를 위해 더욱 고귀한 운명과 고결한 특성을 마음속에 그리며 존재를 위한 고투에서 고무되며 격려 받을 것입니다. ... 인간은 자신이 찾을 것을 구하고 믿으며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울이는 노력에는 응답 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입니다.”²⁰ 은총은 그것을 겸손히 구하는 자들에게 올 것입니다.

미니 루이스 하스킨스는 이 원리를 한 편의 사랑스런 시에 담았습니다.

새해의 입구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빛을 주시오, 미지의 곳으로 안전하게
여행하겠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
빛보다 훌륭하고 알려진 길보다 안전하리라.”²¹

마지막으로, 청결함에 있어 본이 되십시오.

“여호와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²²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1873~1970)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전은 강하고 깨끗한 가정에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시는 친절한 부모님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가정 건설자들이며 모든 곳에서, 어린 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세상의 악으로부터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배웁니다.”²³

우리 아버지의 감사하는 마음

여러 해 전에 저는 스테이크 회장단을 재조직하러 와이오밍 주 스타밸리에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해임될 스테이크 회장인 이 프란시스 윈터스는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상황과 천성이 그를 겸손하게 했지만 그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스테이크 대회 날, 건물은 차고 넘쳤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비이기적으로 바친 이 고결한 지도자에게 감사하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일어섰을 때, 전에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 후로도 해 본 적이 없는 어떤 일을 하라는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저는 프란시스 윈터스가 그 스테이크를 얼마나 오랫동안 감리했는지 말했습니다. 그 후 어린 시절 그로부터 축복 받거나 확인 받은 사람은 모두 일어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윈터스 스테이크 회장에게서 성임 받았거나, 성별 받았거나, 개인적으로 상담 받았거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청중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여린 마음들이 지닌 감사를 말보다 더 잘 전달했습니다. 저는 윈터스 스테이크 회장과 자매에게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속삭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삶에 대한 개개인의 느낌뿐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도 나타냅니다.” 그 청중 중 그 누구도 그날 주님의 영의 언어를 목격하며 느낀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프란시스 윈터스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습니다.²⁴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
정성 다해 수호하려
영원토록 굳게 서리라.²⁵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

주

1. 마태복음 13:55.
2. 마태복음 12:25.
3. 교리와 성약 132:8.
4. 교리와 성약 88:119.
5. 고린도전서 3:16.
6. 교리와 성약 18:10.
7. 마태복음 11:28~30.
8. 누가복음 2:52.

9. 사도행전 10:38.
10. 사도행전 8:31.
11. 디모데전서 4:12.
12. 교리와 성약 136:24.
13. 조셉 엘 타운센드, “친절한 말들을 서로 하세”, 찬송가, 151장.
14. “친절과 봉사의 삶”에 인용, 교회 소식, 1996년 9월 21일, 10쪽.
15.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시라”, *Ensign*, 1987년 11월, 47쪽.
16. *Maxims* 1959년, 54쪽.
17. 고린도전서 13:8 참조.
18. 모로나이서 7:47.
19. 시편 51:10.
20. 연차 대회 보고, 1937년 10월, 31,38쪽.
21. *Masterpieces of Religious Verse* 중 “새해의 입구”에서(1948년), 제임스 달튼 모리스, 92쪽.
22. 시편 24:3~5.
23. 연차 대회 보고, 1909년 4월, 66쪽.
24. 디모데전서 4:12.
25. 에반 스테브스, “의와 진리 지키기에”, 찬송가, 141장.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과 함께 집을 짓는 과정에 대해 토론한다. 네 번째 단락을 소리내어 읽는다. “영원한 집을 짓는 건설자”로서 그들이 받았던 하늘의 도움에 대해 나누도록 부탁한다.
2. 나무, 컵 또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언급된 6가지 요소의 이름들을 붙인 집 짓기 블럭들을 사용해서 작은 집을 만들어 본다. 각 블럭이 제 위치에 놓여질 때마다 그 구성 요소에 대해 몬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읽는다. 가족들로 하여금 왜 각 요소들이 중요한지 나누도록 부탁한다. 가족들이 그들에게 “믿는 자에게 본” 이 되어 주었던 누군가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3. 기사에 있는 프란시스 윈터스의 이야기를 나누고, 주의 청사진을 따름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 간증을 나눈다.



우리에게 필멸의 생을 가져다 준 아담의 역할



조셉 필딩 스미스는 해박한 복음 및 경전 지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55년 이상 봉사했으며, 1965년 10월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 그 후 1970년에 교회 회장으로 부름 받았다. 1967년 10월, 그는 아담의 타락으로 알려진 인류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 말씀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1876~1972)

제10대 교회 회장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인 하나님의 면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버지께서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은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어떤 열매를 먹었습니다. 저의 킹 제임스 판 성경은 주해에서 아담의 타락을 “인간의 수치스런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지상에 필멸을 가져다주기 위해 이곳에 왔고, 그로 인해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서신 것은 구주였습니다. 주님은 인류와 영원하신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지를 인류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필멸의 세상에서 이제까지 행해졌던 것 중 가장 위대한 일을 수행하셨고, 그것은 인류가 영원하신 아버지께 진 빛과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물려받았던 빛을 대신 갚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아담은 단지 그가 해야 했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 열매를 매우 좋은 한 가지 이유로 취했는데, 그 이유란 여러분과 저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기 위한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브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었다면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브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곳에 가게 된다면, 저는 그녀에게 그 열매를 따 먹도록 아담을 유혹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 유혹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자녀들이 이 지상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아담에게 이러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담이 그에게 주어진 첫번째 계명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직도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우리는 아예 이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인간의 수치스러운 타락”이라는 주석을 달았을 때 그 주해자는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이 인간으로 하여금 필멸의 생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하리라 예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나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필멸의 상태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이 필멸의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필멸의 세상에서 필멸의 존재로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고통 받고 질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과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받은 계명들에 순종하며 참되고 충실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해의 영광의 충만함을 얻을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필멸의 존재로서의 특권

해의 영광의 축복은 이 필멸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우리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필멸의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경험과 훈련들을 쌓고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학교, 즉 필멸의 학교에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알게 되고 준비되며 주님의 계명에 참되고 충실하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면전에서 자손의 충만하고 영원한 증식과 아마도 우리의 충실함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고 그곳을 사람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때 아담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담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곳에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필멸의 생을 가져다 줄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길 간절히 바라면서 하늘에서 영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경험과 훈련을 얻기 위해 이 필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되기 위해서는 고통과 질병과 그 밖에 우리가 이 필멸의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아담에 대해 불평하고 그가 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저는 그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 있고 필멸의 생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 기쁩니다. 또한 제가 만약 교회 회원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저에게 주어지는 성약과 임무에 진실하고 충실하다면,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특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해의 영광의 충만함을 얻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

1967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 부제가 첨부됨. 구두법, 대문자, 철자가 현대적으로 수정됨.



모잠비크의 편안함

모잠비크의 청소년들은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돕는다.

벤자민 토마스 게리슨

모잠비크.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이름은 이국적인 야생
생물과 무성한 녹색 식물 또는 백사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그 이름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프리카 동남쪽 어딘가에 위치한 그곳을
찾기 위해 지도를 들여다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 콘세이샤오에게 그곳은 고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하미주아 지부의

회원들과 몇몇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마리아는 이제 모잠비크에
자신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큰 영혼을 지닌 작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큰딸에게 버림 받고, 홀로 어린 두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위해 모인 모잠비크 청소년들

태어나면서부터 그녀를 점점 쇠약하게 만드는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된 그녀는 매달 집세를 내기 위해 애씁니다. 실업률이 높은 이 나라에서 직업과 돈을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든 생계를 꾸려 나가며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모잠비크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와 삶에 대한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마참비*(넓은 정원)에서 두 자녀와 그녀 자신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진흙으로 만든 조그마한 집의 집세를 내기 위해 실재없이 일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음식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왔습니다. 불행하게도 마리아의 두 자녀들은 질병과 적절한 의료 시설의 부재로 인해 서로 삼주간의 격차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과 고통은 모잠비크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작은 우리 지부의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나는 마리아에 대해 크게 걱정했습니다. 외딴 곳에 있던 우리 지부는 청소년과 성인 회원을 막론하고 모두 마리아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참비*에서 일했고, 다른 이들은 음식을 제공했으며, 몇몇은 집세를 내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곰곰이 숙고하며 해답을 구하고 있던 중, 저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마 리아는 도움이 필요했고, 모잠비크

인하미주아 지부의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마리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 다 콘세이사오와 그녀의 집 밖에서 함께 있는 게리스 장로

야심 찬 프로젝트로서 마리아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동반자인 비스-네토 장로와 나는 지부의 청소년들에게 이 계획을 제의했고, 그들은 마리아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돈은 얼마 없었고 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난 도움과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진흙과 막대로 만들어진 집에 대한 상상으로 우리의 계획은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재를 들고 걷기

모두가 즉시 그 일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목재를 구해야 했습니다.

집을 지을 목재를 구하기 위해 아프리카 정글로 들어가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집을 짓는 데 쓰일 최고의 나무들을 구하기 위해서, 청소년들과 선교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무성하고 질퍽질퍽한 초원, 끝없이 펼쳐진 논, 무성하게 자란 정글, 그리고 허리까지 오는 진흙 더미를 통과해 두 시간의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벌채용 칼로 가느다란 나무들을 잘라내어 돌아가는 길에 가져갈 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거친 통나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긴 야생 풀로 재빨리 모자를 엮기도 했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시작입니다.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무성한 정글을 지나 작열하는 아프리카의 태양에 맞서 나무들을 나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걷는 동안에도 청소년들은 얼굴에 미소를 띄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18세인 알베스 에구이마네 엘리디오 라자오는, “무척 힘들었지만 우리는 그 순간 순간이 너무나 즐거웠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집이 견고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써서 목재로 골조를 쌓아 올렸습니다. 많은 관대한 손들이 잡초로 엮여 단단히 고정된 길고 가느다란 플라스틱 조각들을 사용해 지붕을 놓았습니다. 이 지붕은 해마다 찾아오는 우기의 맹렬한 폭풍우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진흙 만들기

진흙 벽에서 진흙 바닥과 진흙 벽에 이르기까지, 집을 짓는 대부분의 나날 동안 진흙만을 사용했습니다. 진한 갈색의 흙을 수많은 통에 담아 운반했고 물에 담갔습니다. 수십 명의 청소년들과 지부 회원들이 그 진흙을 섞어 집의 골조를 덮는 일에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외부 벽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으로 내부 벽과 칸막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벽을 몇 인치 두께의 강하고 마른 진흙으로 채워 놓자 그 집은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실내를 장식하기 위해 집의 바닥과 방수가 되는 튼튼한 표면을 만들고자 특별한 성질의 진흙을 조심스럽게 한 겹 덧발랐습니다.

힘든 작업이 계속되는 나날이었지만, 분위기는 유쾌한 유머와 미소로 가득했고, 선교사들과 청소년들이 여러 묶음의 나무와 많은 양의 물을 계속해서 나르고 서로 진흙 덩이를 이리 저리 던지는 것을 지켜보며 이웃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달리고 자물쇠가 설치되었으며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40명이 넘는 회원들과 여러 선교사들이 바친 1,000여 시간의 봉사를 통해 마리아 콘세이샤오는 그녀만의 아름다운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마리아의 집을 완성한 것과 더불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집 짓는 것을 도왔던 19세 청년 헬터 마누엘 토모는 비회원으로서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집을 짓는 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막 나가려던 좋은 친구인 존쿠에이로와 함께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지만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헬터는 지부 청소년들과 함께 집을 지으며 그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소속감을 얻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 받고자 하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존쿠에이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 저는 그가 저를 교회로 초대하고, 제가 이 훌륭한 봉사의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속하게’ 되도록 도와 준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잠비크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아프리카의 동남쪽 연안에 위치한 모잠비크의 인구는 약 천 구백만 명이며, 그 중 3000명 정도가 교회 회원이다. 교회의 339번째 선교부인 모잠비크 마푸토 선교부는 2005년 1월에 조직되었고 30명 가량의 전임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다.

스물두 살인 존쿠에이로 말라이카는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회원들에게 있어 훌륭한
 봉사의 기회였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지부 전체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또한 청소년들이 헬터에게 보여 준 관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라고 존쿠에이로는 말합니다.
 헬터는 이제 지부 선교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전임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계획 중입니다.

모잠비크의 한 외딴 마을 조그마한 부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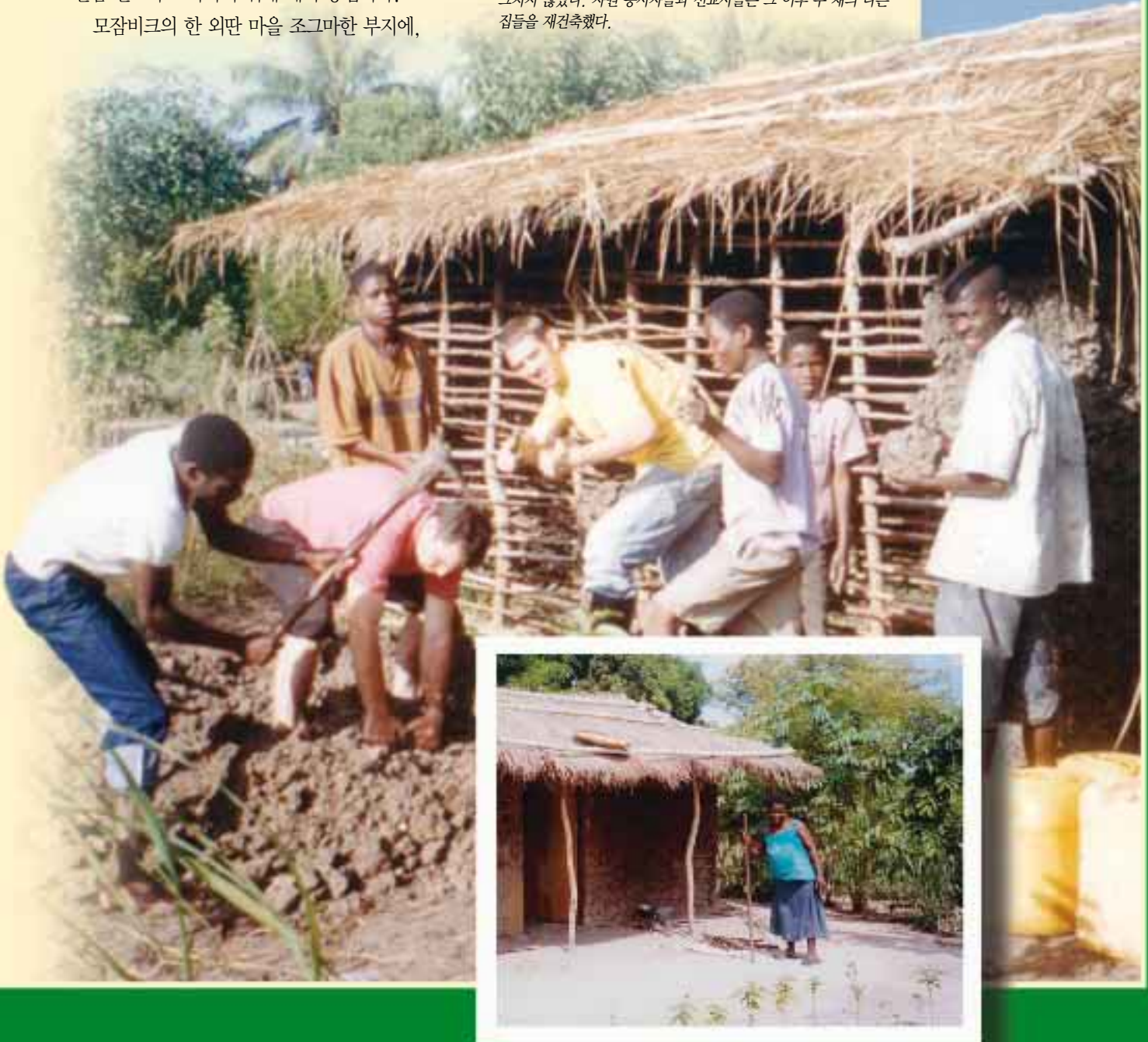
마리아 다 콘세이사오의 집은 사랑과 복음 원리에
 대한 순종을 표명하며 서 있습니다. 마리아와
 인하미주아 지부의 회원들은 생의 힘든 역경
 한 가운데서도 교회 회원들이 선한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할 때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벤자민 토마스 케리슨 형제는 모잠비크 마푸토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편집자 주: 인하미주아 지부의 회원들은 마리아의 집을 짓는 데
 그치지 않았다. 자원 봉사자들과 선교사들은 그 이후 두 채의 다른
 집들을 재건축했다.

40^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들이 1,000여 시간
 동안 봉사한 결과, 마리아는
 새로운 집에서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들의 대가



카를로스 이 아귀어로 장로

지역 칠십인
남 아메리카 남 지역

우리는 우리의 인내와
겸손과 순종을 통해 좋은
일들의 대가를 미리
치릅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배웠고, 신권
지도자들에게 의해 주어지는 약속들이 주님의 영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
약속들을 신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은 우리가 계명에 충실하다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제가 열네 살이었을 때 저는 두 명의 미국인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몰몬경에 대해 들어
보고 싶어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저를 방문할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의 가족 모두가 첫번째
토론을 함께 들었지만, 아무도 계속 듣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인가를 느꼈고 그 메시지가
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토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그렇게 해 주셨고,
제가 거의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저는 아르헨티나
멘도자 구역의 고도이 크루즈 지부에서 침례의
물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듬 해 저는 제 인생에서 매우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헤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힘들었던 시기에 교회가
있었고, 훌륭한 교사들과 지도자들과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아론 신권
제사직에 성임된 후 저는 제 열한 살짜리
여동생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움

그 후 몇 해 동안 저는 야간 학교에 다니면서 폴
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열아홉 살이 되었을 때
선교사 추천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
선교부로 가게 되었다는 부름을 받았던 날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부름장에는 1972년
6월 16일자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는데 그 날짜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단지 몇 주 전의 날짜였습니다.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수많은 과정을 거친 후(저는 미성년자였고, 제
부모님은 헤어지셨으며, 저는 군에 입대할
나이였습니다), 제가 추천서를 낸 지 일년 반
만에야 결국 선교 사업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단지
5년간 배운 고등학교 불어 실력으로 영어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저는 프랑스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선교부 지역 대회들은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아메리카에는 성전이 없었으므로 저는 아직 엔다우먼트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윌스 디 웨이트 선교부 회장님께서 진 콜린이라는 한 젊은 프랑스인과 제가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스위스 성전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밤새 기차로 여행했고 그곳에서 사흘 동안 감동적이고 영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한 지 6개월이 된 어느 날, 선교부 지역 대회 동안 저는 선교부 회장님과 특별한 접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귀어로 장로님, 저는 장로님께 임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지금부터 영어를 배우셔야 합니다. 귀환한 후 장로님은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 선교부 회장,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총관리 역원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영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스무 살의 청년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는 저를 상상할 수 없었고, 저는 아르헨티나에 조직되어 있는 단 세 개의 스테이크 중 이제 막 조직된 새로운 스테이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아귀어로 장로님. 저는 진지하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지도자이신 이분을 통해 성신을 매우 강하게 느꼈고, 그 후 회장님은 제가 그분의 지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장로님은 매일 하루에

반나절씩 동반자와 오직 영어로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제 동반자도 그와의 접견에서 저와 똑같은 임무를 지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배우라는 선교부

회장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선교 사업 후에 하트만 렉터 주니어 장로님을 포함해서 여러 총관리 직원들을 위해 통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한 후 저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임무에 순종하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날을 낙담과 절망으로 울면서 밤에 기도하곤 했습니다.

몇 달 후, 그리고 몇 명의 동반자가 바뀐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교부 지역 대회에서

한 선교사가 영어로 어떤 아름다운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어의 모든 단어 하나 하나가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선교부 재정 담당자로서 봉사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영어로 읽고 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치 뉴스*(Church News)와 *엔사인*, 그리고 그 외 영어로 된 다른 자료를 읽으면서 영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저는 영어를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전에서의 통역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의 스테이크 회장님께서는 스테이크 회화를 감리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멘도자에 오신, 당시 칠십인이셨던 하트만 렉터 2세 장로님을 위해 통역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회들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왔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성전의 열한 번의 헌납 세션 동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다른 총관리 직원들의

말씀을 통역했습니다.

그 중 네 번의 세션 동안 저는 해의 왕국실 안에 있는 연단에서 헌납 기도문을 스페인어로 읽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격해진 감정으로 인해 여러 번 갈라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살아 계시며 그분의 뜻을 나타내 밝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조국을 위해 주신 약속들과 영감 받은 기도를 읽었습니다.

저는 또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성전의 네 번의 헌납 세션과, 파라과이 아순시온 성전의 네 번의 헌납 세션 동안 선지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말씀을 통역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집에서 선지자이시고 선견자이시며 계시자이신 그분들 옆에 섰던 순간들이 얼마나 성스러웠는지 설명하기란 어렵습니다. 저는 변형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마태복음 17:4)라고 말하면서 저의 느낌을 대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과 다른 경험들을 통해 저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임하시는지 배웠습니다. 좋은 일들에 대한 대가는 특히 시련 중에 우리의 인내와 겸손과 순종을 통해 미리 치러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련 중에 포기하지 않고 절망과 낙담이 우리를 뒤덮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면, 시련은 우리를 영적으로 순화시키고 더 나은 일을 위해 준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카를로스 이 아귀에로 장로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즉각적인 응답

응고지 에프 오코로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우리 학교에서 학기말이 되었을 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으리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 선생님은 교무실로 나를 불러 성적이 평균 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선생님께 “그럴 리가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내 점수를 기록한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기록한 점수가 잘못된 것을 보고 점수가 올바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시험지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안 일을 마친 후 나는 시험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시험지를 끼워 두었던 책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책들도 다 뒤져 보았지만 그래도 시험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교과서들과 옷가지를 넣어 두는 옷장을 뒤져 보았지만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책장으로 돌아가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한 시간 내에 잃어버린 시험지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험지가 어디에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동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간 나는 시험지를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문득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즉시 눈을 감고 책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시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조용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놀랍게도 시험지를 끼워 둔 책이 책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책 속에는 내가 찾던 시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슬픔은 사라지고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학교에 가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 기도에 그토록 빨리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시간 동안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을 주님께 부탁했을 때는 한 순간만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간단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그분을 부를 때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8:37 참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

응고지 에프 오코로 자매는 나이지리아 이바단 지방부 이바단 1와드의 회원이다.



Wilford Woodruff

신앙을 위해 싸움

우드럽 회장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위해 싸우며 오늘날 우리의 삶과 관련된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론 엘 웨스트

고 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서는 “마음속에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생생하고 힘찬 간증을 키우라”¹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고를 따르고자 노력하면서, 힝클리 회장님 이전에 회장으로 봉사하신 분들 중 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4대 회장을 지내신 윌포드 우드럽(1907~1998) 회장님의 눈을 통해 복음의 회복을 바라볼 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싸우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가 보게 하며, 절름발이가 걷게 하고, 여러분에게 성신을 부여하며, 세상의 창조로부터 분명히 나타난 은사들과 축복들을 주는 그 종교를 위해 여러분들이 왜 싸우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대의 축복사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시현을 보았을 때 가르쳤던 원리들을 여러분은 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천사들의 보살핌을 받았고 꿈과 비전이 있었으며 끝없는 시현을 통해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로 안내 받고 인도되었습니다.”

참된 교회를 찾아서

조셉 스미스는 1820년대에 첫번째 시현을 보고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금판을 번역하고 신권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한편 인접한 어느 주에서 윌포드 우드럽이라는 한 청년도 참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 다시 세워지리라는 것과, 살아서 그것을 보리라는 것을 믿었다.”²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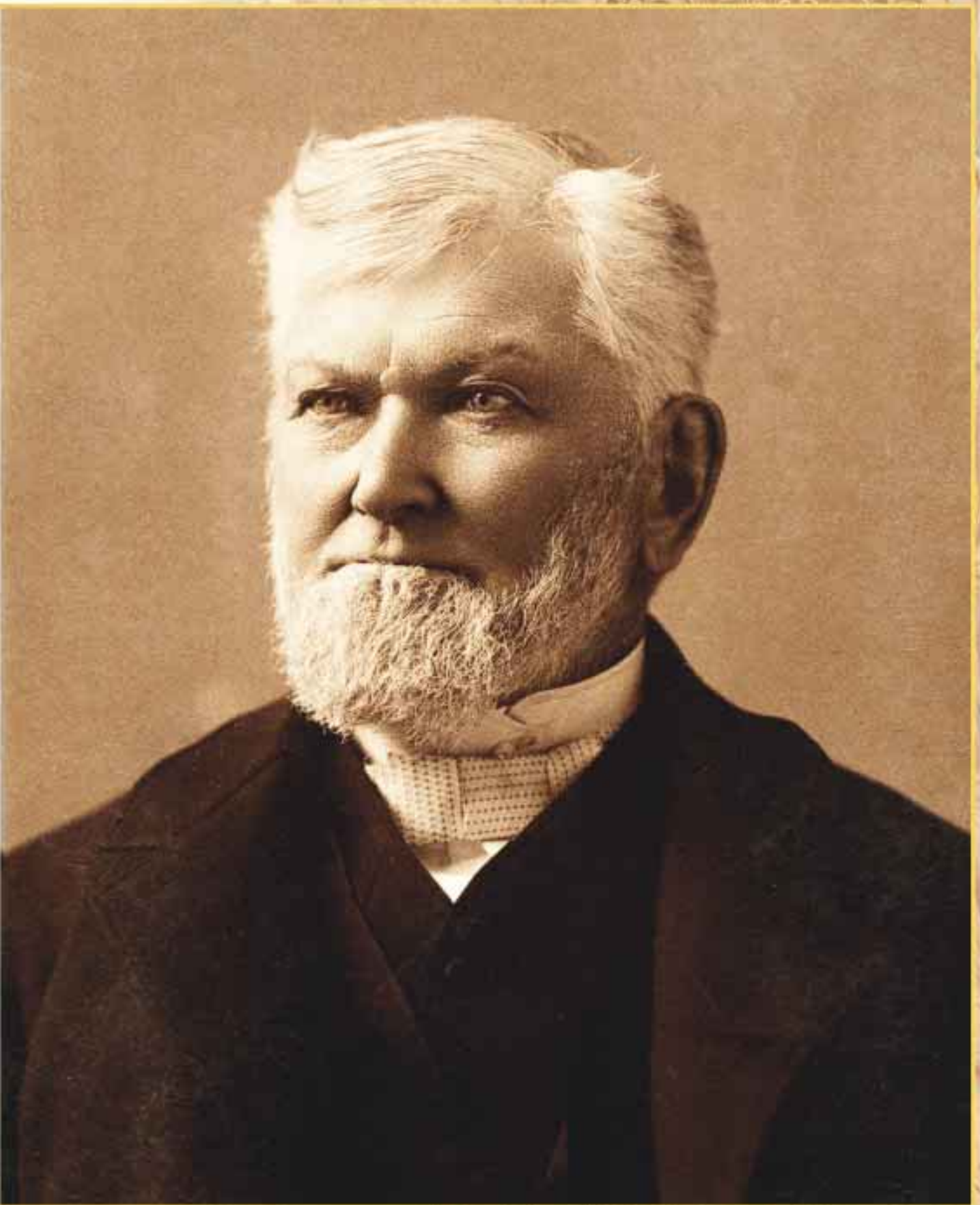
진리를 찾고자 갈망하던 윌포드 우드럽은 그의 집 근처에서 열린 많은 종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중 한 집회에서, 모인 사람들 중 누구나 말을 해도 좋다는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청년 윌포드는 여러 교회의 40명이 넘는 목사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통로로 나가 말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한때 성도들에게 전달된 바 있는 신앙을 위해 싸우지 않는지 제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또 그의 사도들이 가르친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토록 젊은 청년에게서 그토록 담대한 말을 듣게 되어 분명 놀랐을 것입니다. 사회를 맡고 있던 목사는 즉시 윌포드가 한 말의 효과를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는 “친애하는 젊은이, 자네가 그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믿지 않는다면 자네는 세상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고 아주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걸세. 이런 것들은 세상이 무지했던 시대에 인간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네 ... 오늘날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속에서 살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의 말을 납득할 수 없었던 윌포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암흑의 시기를 주십시오. 사람들이 이러한 원리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주십시오.”³

얼마 후 스물여섯 살의 윌포드 우드럽은 한 작은 학교에서 열린 또 하나의 모임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들인 제라 펠시퍼 장로와 엘리야 체니 장로의 간증을 듣고 난 후 그에 대해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월포드는 당시를 회상하며 “펠시퍼 장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건물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나는 내가 왜 일어섰는지도 모른 채 긴 의자 위에 올라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이분들과 또 이분들의 간증에 대해 여러분이 하시는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에게 진리, 곧 제가 어릴 때부터 찾아온 원리들에 대해 간증해 주셨습니다.’”⁴라고 말했습니다. 월포드 우드럽은 이를 후 1833년 12월 31일 침례 및 확인을 받았습니다.



분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일생과 가르침에 대해 공부해 보면 우리는 그분이 생기 넘치고 인정 많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였으며, 시련의 시기에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⁶ 또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백여 년 전에 주어졌지만 결코 가까이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 깊이 관련된 이 말씀들은 다음 연차 대회에서 들어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인용문은 회복된 복음에 대한 우드럽 회장의 간증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글들은 24개국어로 된 2006년도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인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월포드 우드럽”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복음의 회복. “저는 제 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⁷

“우리는 빛으로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으며, 진리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특권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구원 받고 승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과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사와 영감 받은 사람들을 주셨으며, 그들은 영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감 받고, 진리로 옷 입고 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가르칠 지혜를 부여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많은 간증과 …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에서, 지구에 온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은 인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그러한 희생이 치러지도록 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행동을 하셨으며, 그분에게 주어진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여기에 신앙이나 소망보다 더 큰 사랑과 더불어, 빛과, 영광과, 존귀와, 불멸과, 영생이 있으니, 하나님의 어린양이 인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⁹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에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습니다.”¹⁰

선지자 조셉 스미스. “저는 조셉 형제에게서 본 것으로 인해

신앙을 위해 싸움

월포드 우드럽이 일어나 그가 살던 지역의 목사들에게 말했을 때, 그는 신약전서 끝부분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유다서 1:3)는 유다의 호소를 되풀이하여 말했습니다.

월포드 우드럽이 잘 인용되지 않는 이 구절을 인용했다는 것은 그가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성경에 관한 지식은 그가 “한 장 한 장, 그리고 한 절 한 절씩 읽었”⁵을 때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구절을 강조했다다는 것은 주의 깊이 공부했다는 것 이상을 보여 줍니다. 이는 진리를 찾겠다는 그의 결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자 주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대배도에 의해 초래된 혼란을 경험한 월포드 우드럽은 “영광스런 복음의 광채 속에서 산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월포드 우드럽 회장의 가르침

두드러진 이마와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월포드 우드럽 회장의 사진들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이 엄격하고 가까이하기에 어려운

원문: 칼빈 모인, 영생산다 리이다, 의회 도서관 인쇄물 및 사진과 제본, 복사할 수 있음. 월포드 우드럽의 회고, 제1권, 제12장, 제120-121쪽. 시온, 제1권, 제12장, 제120-121쪽. 시온, 제1권, 제12장, 제120-121쪽. 시온, 제1권, 제12장, 제120-121쪽.

크게 기뻐해왔는데 그 이유는 그가 공적으로나 사적인 행동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였고, 그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 영혼의 위대함을 제게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¹¹

“저는 몸소 그 어느 시대에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보다 더욱 하나님인 아버지와 하나님인 아들과 하나님인 성신과 친밀하게 연합하고 교류한 사람이 있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현의 능력은 그가 신권을 받으라는 부름을 받은 날로부터 그가 순교할 때까지 그와 함께했습니다. 영감의 능력이 매일 그와 함께했습니다.”¹²

신권. “사도나 회장, 감독 또는 신권을 소유한 그 누구라도 의식을 집행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의식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신권은 효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자녀에게 주는 모든 축복은 현세의 삶은 물론 죽은 후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만일 거룩한 신권에 의해 주어진 축복을 갖고 있다면, 혹은 제가 축복사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면, 그 은사들과 축복들은 저 세상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세의 삶을 통해 저의 성약들을 충실히 지킨다면 그 축복들이 주어진 권세는 주께서 성임하신 것이므로 저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임하신 바로 이 권세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들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의식을 베푸는 것이며 그 공식적인 행위들은 그 의식을 받은 자들에게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효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부이니 이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우리는 복음에 의해 주어진 이 축복들을 통해 우리의 몸을 다시 부여 받고 영원히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능을 갖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권 덕분에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¹³



계명을 지킴. “지상에서 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남자나 여자 중에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후회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¹⁴

성신의 은사. “이제, 성신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면—그리고 모든 사람은 성신을 지녀야 마땅합니다.—저는 여러분께 그보다 더 큰 은사가 없으며 그 보다 더 큰 축복도 없고 지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그보다 더 큰 간증이 주어진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많은 기적들을 볼 수 있고, 세상에서 많은 기이한



왼쪽 끝: 윌포드 우드럽의 뒤로 그의 개종에 영향을 준 것들—종교 집회와 그에게 침례를 준 제라 필시퍼. 왼쪽: 윌포드 우드럽의 아내 피비. 아래: 1894년 제1회장단—우드럽 회장(가운데), 조지 큐 캐논 회장(왼쪽),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오른쪽)



일들을 볼 수 있지만 저는 성신의 은사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신의 은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행한 일들을 해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박해와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견디어내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성신입니다.”¹⁵

“제 일생 동안 모든 일에 있어, 제가 주의 영에게서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을 때마다 저는 언제나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신의 권능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시현의 영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시현의 영을 받을 때 여러분은 안전하며 주께서 여러분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¹⁶

가정 생활. “우리는 모두 죽은 후에 영원히 함께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나 자식으로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¹⁷

“어떻게 행동하면 가족의 마음과 애정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하여 그들을 구원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일이며 부모가 옆으로 제쳐놓을 일이 아닙니다. ...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업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머릿속에서 빨리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마음이 열려 있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을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가족,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관해 그에게 부여된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결케 된 자들이 우리는 모든 축복을 얻게 함으로써, 충만한 복음에 충실하여 온 부모들이 누린 축복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¹⁸

선교 사업.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사회와 가정의 평안을 원하고, 무한한 미래를 생각할 때, 존재의 상태에 대해 언급되는 축복을 얻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인생의 길을 보여 주지 않는 한, 그들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¹⁹

“저는 온 생애를 거의 이 교회를 위해 보냈으며, 교회에 들어온 날부터 선교 사업을 하러 나아갔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결코 그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이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었으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제가 죽어 무덤에 눕게 될 때, 누군가 일어서서, 할 수 있는 한 그를 구원해야 할 의무를 제가 소홀히 했다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기쁨을 얻었으며, 국내와 외국에서 영생과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인 줄 알고 있었으며, 지금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²⁰

성전과 가족 역사 사업. “금과 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부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모두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이것들은 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극복한다면, 우리가 장막의 저편으로 갈 때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저는 기뻐합니다. 주께서 보여 주신 원리들 중에 제가 죽은 자의 구속보다 더 기뻐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첫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해의 왕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원리들입니다. 이 원리들은 모든 희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²¹

“우리는 지금부터 후기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족 계보를 추적하여 어머니 아버지와 인봉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인봉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인봉의 고리가 연결되도록 하십시오.”²²

“올바르게 생각하는 후기 성도라면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 하늘의 기쁨이 주는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²³

경고와 격려의 말씀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교회가 가야 할 미래를 생각하며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복음의 회복이라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우리는 저속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위대한 유산을 위해 조금 더 고상해지고 조금

더 나아져야 합니다.”²⁴ 120여 년 전에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도 후기 성도들에게 이와 비슷하게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경고와 격려를 담은 그분의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후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 손에 맡겨진 진리를 위해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신권에 성실하고, 그분에게 진실하고, 서로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집이나 토지, 금이나 은, 이 세상의 어떤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보내 주신 위대한 목적을 수행하는 일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높고, 우리의 운명은 송고하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혹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하늘의 무리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들 역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 어느 것이라도 우리를 진리로부터, 혹은 그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머리를 돌리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²⁵

아론 엘 웨스트는 유타 주 케이즈빌 중부 스테이크 케이즈빌 제2와드의 회원이다.

주

1. “Recurring Themes of President Hinckley”, *Ensign*, 2000년 6월, 21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2004), xix에서 인용.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36~37쪽에서 인용, 또한 35쪽 참조.
4. *Millennial Star*, 1891년 10월 5일,

- | | |
|---|--|
| 627쪽, 또한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xix~xx, 37~38쪽 참조. | 15.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49쪽. |
| 5.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35쪽에서 인용. | 16.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52쪽. |
| 6.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109, 153, 162, 218쪽 참조. | 17.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163쪽. |
| 7.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10쪽. | 18.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167~168쪽. |
| 8.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8~9쪽. | 19.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92쪽. |
| 9.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69~70쪽. | 20.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95쪽. |
| 10.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74쪽. | 21.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192~193쪽. |
| 11.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15쪽. | 22.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177쪽. |
| 12.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16쪽. | 23.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176쪽. |
| 13.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42~43쪽. | 24. “Excerpts from Recent Addres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i>Ensign</i> , 1999년 3월, 72쪽. |
| 14.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213쪽. | 25.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i> , 43~44쪽. |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은 1892년 4월 연차 대회(아래) 중 솔트레이크 성전의 관석을 놓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일 년 후, 1893년 4월 우드럽 회장님은 솔트레이크 성전을 헌납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일

위엄있게 ♩ = 58-69

Descant

Ah, _____ ah.

1. 하 나 님 이 루 시 는 일 참
2. 그 용 기 새 루 시 어 하 라 구
3. 주 복 적 양 이 자 루 어 면 지 니 처
4. 불 신 앙 자 는 면 자 자 니 그

Ah, _____

오 모 하 구 나 그 경 룬 측 랑 못 하
름 가 리 우 나 주 큰 사 랑 도 우
음 가 리 쓰 지 나 주 중 사 랑 도 우
의 일 헛 되 네 질 질 있 게 행 시

ah. _____

고 참 기 이 하 도 다
고 또 또 기 이 하 도 다
켜 또 놀 라 계 하 하 하 리
네

작사(영어): William Cowper, 1731~1800
작곡: William B. Bradbury, 1816~1868
수창: Ralph B. Woodward, 1944년 출생

시편 107:23~31
로마서 8:28

이 찬송가는 교회나 가정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음.

일포드 우드럽 회장님이 좋아하신 찬송가

상호부조회의 목적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상호부조회에 속함으로써 오는 축복:

상호부조회는 교회 자매들을 위해
신권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조직이다.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자매들과 가정들이
주께 나아오도록 도와 줌으로써 신권
지도자들이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보조하는 것이다. 상호부조회는 자매들과
그 가족들이 모든 중요한 신권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그와 관련된 성약들을
지키고 승명과 영생에 이를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다음은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들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키우고 하나님 왕국의 원리들을 가르친다.
2. 각 자매의 신성한 가치를 강조한다.
3. 자애를 베풀고 궁핍한 자들을
돌본다.
4. 가족을 강화시키고 보호한다.
5. 각 자매를 위해 봉사하고 돕는다.
6. 자매들이 신권의 축복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1838~1918):

“이 조직은 여성과 남성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신성하게
만들어지고, 신성하게 승인되었으며,

신성하게 설립되고, 신성하게
제정되었습니다. ... [상호부조회를]
최우선시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고귀하고 훌륭하며 깊이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곧 최상이 되고, 가장
위대하게 되고, 가장 훌륭하게 되며, 가장
순결하고, 또 권리에 대해 가장 헌신적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
184쪽)

보니 디 파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키우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전할 조직이
주어졌습니다. 상호부조회가 바로 그
조직입니다.”(“Transforming
Transitions”, in *The Rock of Our
Redeemer: Talks from the 2002 BYU
Women’s Conference* [2003], 45쪽)

엘리자 알 스노우,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훌륭한 일, 즉 가난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
훌륭한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면
개개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때보다도 헤아릴 수
없이 더 많은 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Female Relief
Society,”
*Deseret
Evening News*,

1868년 4월 18일, 2쪽)

여러분은 상호부조회 회원으로서 어떻게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앤 시 핑그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교리와 성약
4편 5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풍성한
영적 통찰력을 경험할 수 있고 깊은 영적인
힘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호부조회에 속한 성약의 여성들 간에
형성된 관계는 진실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밝고 생기있게 하며,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을 향해 걸으며”,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12~113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랑하는
상호부조회의 친구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어디에 살든,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내리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과 아름다움을 가져오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삶에 빛과
아름다움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교회의
여성들에게”,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15쪽) ■



자매들의 행복한 모임

상호부조회의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들은 전세계의 자매들이 그들의 마음과 가정을 사랑과 자애로 가득 채우도록 도와 줍니다.

릴리안 드롱

본부 상호부조회 위원회

우 크라이나 렛스크에 있는 한 작은 부엌은 쿠키와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모인 열여섯 명의 자매들이 켜 놓은 오븐의 온기로 훈훈합니다. 오븐은 바닥에 놓여 있고 자매들은 주변에 앉아 오븐의 온기뿐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모임을 “자매들의 밤”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은 아마도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으로 더 잘 알고 있는 즐거운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자매들은 많이 웃고 서로 포옹하고 춤까지 춥니다. 이들은 늘 함께 찬송을 부르며 교회 찬송가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찬송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세 시간 동안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오르는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이신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께서 상호부조회는 배움과 봉사, 그리고 사교의 장소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신 가르침을 재확인시켜 주는 이 얼마나 훌륭한 예입니까?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보니 디 파킨 자매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즐거운 환경 속에서 마음과 손이 서로 결합하는 장소”라고 설명했던 그 모습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파킨 자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영적인 힘을 키워 주고 개인의 재능을 발전시켜 주며 가정과 가족을 강화시켜 주고 봉사를 통해 자애를 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때,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의 모든 단계에 있는 여성들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에서 자매들 사이의 유대감이 강화되어 새로운 회원들과 저활동 회원들은 친목을 다지게 되고 선교 사업의 기회들이 넘치게 됩니다.”

배움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의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자매들은 그들의 상황과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나누고 함께 배우게 됩니다.





나이지리아 남동부 우림 지역에서는 밝은 색 옷을 입고 밝은 색 천을 머리에 묶은 청년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조출한 교회 집회소 밖에 모여 블라우스와 치마의 견본 뜨는 법을 배웁니다. 빈 시멘트 포대를 도화지로 사용하여,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탁자 주위에 모여서 이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청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견본과 옷감을 자른 후, 번갈아 가며 발로 밟아 돌리는 재봉틀을 이용해 옷을 완성시킵니다.

봉사

알래스카 주노 스테이크 주노 제2와드 자매들은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 유대감을 느낍니다. 매달 첫째 일요일,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일원인 샌디 퍼킨스 자매는 “어떻게 하면 복음의 빛을 우리 지역 사회에 가져올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그 달의 강화 모임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지역 내 몇몇 자선 단체와 자선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현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자매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퍼킨스 자매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을 내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 우리의 빛을 함께 나눔으로써 이곳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늘리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교 모임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은 서로 가까워지고 상호부조회 회원들과 방문객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데 필요한 자매들간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정말 멋진 모임입니다. 여행객들이 끝없이 오가는 휴양 도시, 스페인의 베니돔에서 열린 한 강화 모임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쿠아도르, 페루, 콜롬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스페인에서 온 자매들이 강화 모임을 위해 모입니다. 이날 저녁 스위스에서 온 자매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기회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디자인이 간단해서 자매들이 만나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동안 쉽게 숙달될 수 있습니다.

자매들은 함께 작업을 하는 동안 우정과 진실한 마음으로 언어의 장벽을 금세 극복합니다. 자매 선교사들은 구도자 몇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구도자들이 안식일에 이 작은 지부를 다시 방문할 때 그들은 이미 이 그룹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왼쪽: 우크라이나 컷스크의 자매들이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에서 서로 온기를 나누는 모습. 오른쪽: 나이지리아에서 자매들이 블라우스와 치마 견본 만드는 방법을 배우러 모인 모습.



받습니다.

간단한 활동이지만 이 강화 모임은 배우고 봉사하며
우정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해 줍니다.
몇몇 자매들은 “난 갈 필요가 없어. 카드도 더
이상 필요 없고.”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카드 만들기는 그날 밤 강화 모임에
참석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얻고자 참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 그저 이야기를 들어
주거나, 한 마디 격려의 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손을 내밀어
따뜻하게 맞이해 주기 위해 참석합니다.

상호부조회로 오세요

오늘날 세상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다른 회원들은 혼자 아이를 길러야 하는
시간적 부담,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먼 거리를 가야 한다는 부담,
상호부조회 모임에 오고 참여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면서
혼자 일곱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사는 한 어머니는 무엇이 그녀가
강화 모임에 참석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 가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야만 할
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한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파킨 자매는 “상호부조회로
오세요! 상호부조회는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과 자애로 가득 채울

선교사로 봉사 중인 마리아 자스민 후안 자매(가운데)



것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고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²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여성들과 같이 여러분도 초청 받았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필리핀 마닐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 자스민 후안 자매는 상호부조회 모임에
나오기로 선택하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저는 아주 외로웠고 엄마가
그리웠어요.”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가 상호부조회에
가면 편찮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매님들이 저를 강화
모임에서 환영해 주었을 때, 저는 그곳이 ‘어머니’ 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상호부조회를 통해 여러분은



변치 않는 원칙

“저는 이 단체가 네 가지
변함없는 개념 위에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첫째, 상호부조회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여성
단체입니다. 둘째, 상호부조회는
배움의 장소입니다. 셋째, 상호부조회는 그 기본
현장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입니다. 넷째,
상호부조회는 여성들이 서로 교제하고 영원한
우정을 확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여러분은 모두 하늘에서
보내셨습니다”, 리아호나, 2002년 11월, 111쪽.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곳, 찾아가서 웃으며 시간을
보냄으로써 우정이 돈독해지는 곳, 방문객이 환영 받는 따뜻한
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에 오셔서 여성들을 위한
주님의 조직의 일원이 되세요. 우크라이나의 작은 부엌에 있는
오븐처럼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

필리핀 드롱은 사우스 웨버 유터 스테이크 사우스 웨버 제1와드의 회원이다.

주

1. “여러분은 모두 하늘에서 보내졌습니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11쪽.
2. “상호부조회가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축복해 주었나요?”,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35쪽.





모든 사람을 포함함

소 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남들에게 따돌림 받았던 사람을 안 적이 있나요? 이런 일이 학교, 교회, 또는 다른 어떤 곳에서 일어났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때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웨덴 스톡홀름 남 스테이크 한텐 와드의 청소년들이 전하는, 소외감에 대처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환영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몇 가지 비결을 소개합니다.

소속감을 느낌

- *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당신의 기준을 낮출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 *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마음 상하는 일이지만 화를 내거나 원한을 품지는 마십시오. 마음만 더 상할 뿐입니다.
- *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 복음대로 살도록 당신을 격려하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도록 하십시오.
- * 자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십시오.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고 운동을 배우는 것은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 * 교회 청소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 *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가정에서 가장 좋은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친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 * 누군가 친구가 되어 달라고 부탁할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지 마십시오.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킴

- * 학교나 교회에서 새로 온 사람들에게 말을 걸려고 노력하십시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 * 친구가 필요할지 모르는 사람을 학교나 교회 활동에 초대하십시오.
- *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환영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대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데 있어 모범이 되십시오.
- *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옆에 앉거나 그 사람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앉도록 청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 보십시오.
- * 누군가를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시며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 주는 성신의 속삭임에 민감해지도록 하십시오.
- * 무도회장에 있을 때 그날 밤 아직 춤을 추지 못한 사람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청하십시오.
- *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 주는 일이 때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하십시오. ■

내 인생을 바꾼 공과

전세계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축복해 준 공과에 대한 이야기를 모집한다는 요청에 호응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받은 많은 응답 중 몇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여러분이 배운 공과들을 상기시켜 주고 여러분이 교사로서 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벽돌

우리 부부는 결혼 초기에 남편의 학업 때문에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 나가게 된 와드에서 나는 한 자매와 가까이 일하게 되었는데, 나는 이 자매가 무뚝뚝하고 냉담한 태도를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감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남편에게 불평을 했고 그런 자매가 와드의 지도자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개탄했습니다. 남편은 기대했던 것처럼 내 말에 공감해 주는 대신, 사랑과 관용의 중요성에 대한 비공식적인 공과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교회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각 회원이 마치 벽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결함 없는 “벽돌”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나름대로의 결함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굽힌 자국이 있고 다른 쪽에는 볼록 튀어 나온 부분이 있는 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른 벽돌들과 나란히 놓여질 때, 완전히 들어맞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 우리 자신의 결점과 충돌하는 부분에는 언제나 틈이나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사랑과 관용, 인내, 그리고 용서라는 “회반죽”이 없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완전히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돕는 데 있어 나의 경험이 확대됨에 따라 나는 종종 이 간단한 공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이 더욱 사랑을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부족함과 관련된 경우, 나는 나와 관계에서 이 용서라는 “회반죽”을 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리 앤 페어뱅크스, 워싱턴 스테이크 모세즈 레이크 제10와드

나는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안식일에 교회에 나간 것은 1995년 초였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주말을 경기장과 체육관에서 보냈습니다. 나는 스포츠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스포츠에 대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1995년 1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매 선교사들은 나를 교회에 초대했고 나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금식 간중 모임이었습니다. 나는 긴 나무 의자에 앉았고 자매 선교사 한 명은 내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낯선 얼굴들과 낯선 음악, 낯선 철차들, 그리고 낯선 말들만을 접했습니다. 이전에 성찬식 모임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거고, 그럼 난 여기서 나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끝날 무렵 찰스 더블류 달키스트 2세 선교부 회장님(현재 본부 청남 회장으로 봉사 중)과의 공과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에 남아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매 선교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나는 계획했던 대로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 자매 선교사들에게 말할 용기도 없어서 나는 그냥 참고 있기로 했습니다.

달키스트 회장님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방금 좋은 책을 읽었다면 그 책으로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대답은 “다시 한번 읽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거나 선물로 준다”였습니다.

그는 물문경에 대해 말했고, 그 다음에는 몇 가지 다른 주제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갑자기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그

외에도 더 많은 참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가 그의 인생에서 닦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험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단지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보려고 몰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공과 때문에 나는 교회에 또 나갔고 그후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약 1년 후인 1996년 3월 2일에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겐 다섯 명의 멋진 자녀와 훌륭하고 영원히 함께할 남편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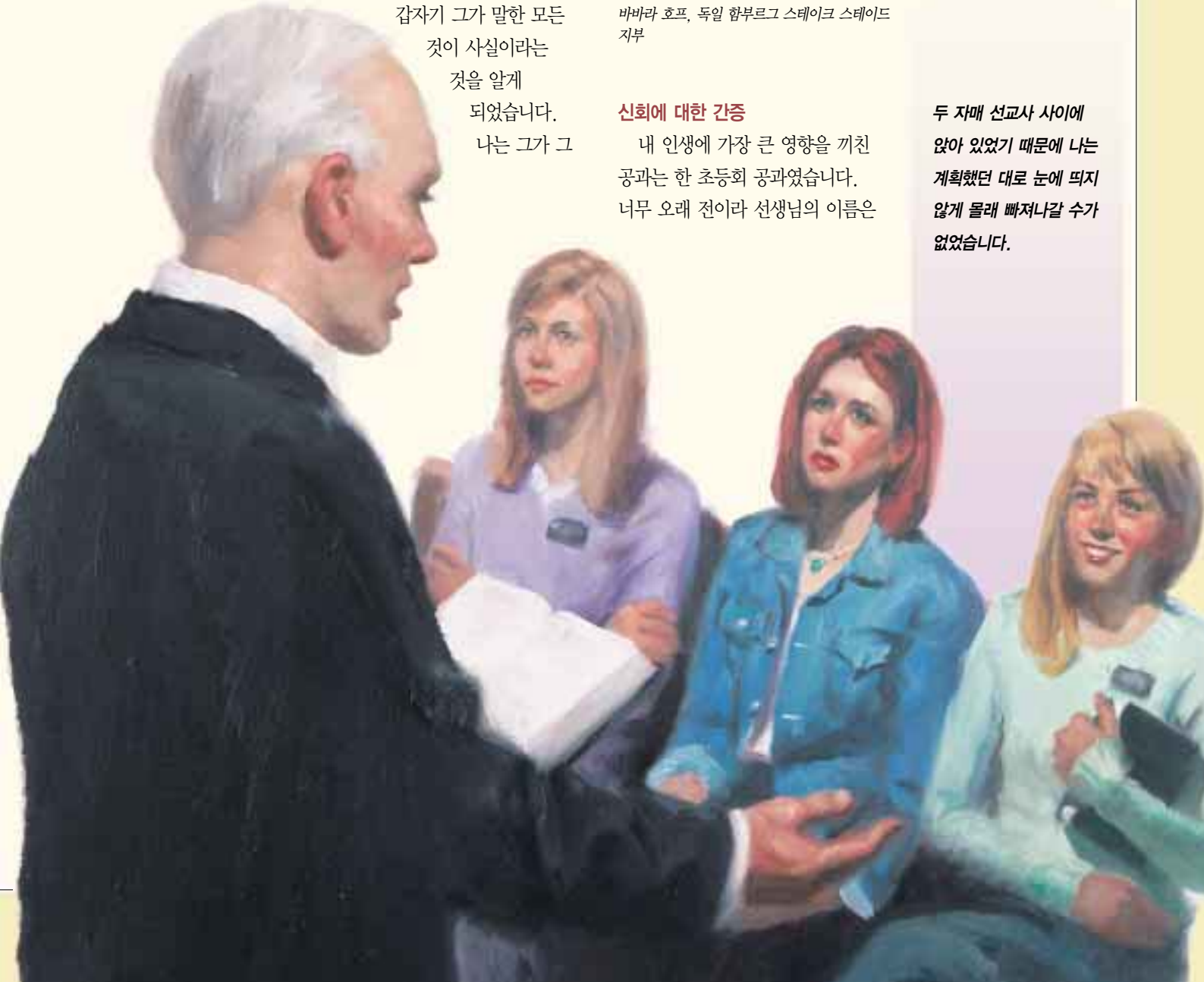
나는 종종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공과를 떠올립니다.

바바라 호프, 독일 함부르크 스테이크 스테이드 지부

신화에 대한 간증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공과는 한 초등학교 공과였습니다. 너무 오래 전이라 선생님의 이름은

**두 자매 선교사 사이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계획했던 대로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다섯 살이었을 때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내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자 구속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 공과는 내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지금까지도 나는 그 내용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섯 살이었을 때, 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자 구속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의 신앙은 커졌고 내 마음속의 무엇인가가 자랐으며 나는 조금씩 신화에 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나는 어린이의 순수한 의도를 갖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와 관련해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일 년 넘게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후 다른 일들이 생겨 교회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무 살이 되었을 때 나는 마침내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집에 돌아왔어요”라고 말하는 어린이의 진실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신앙의 씨앗이 심어졌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그 여선생님이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의 공과는 내 영혼을 변화시켰고, 십사 년 동안 교회와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나를 안전한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에스텔라 산타나 라이토 카발칸테, 브라질 프라이아 그란데 스테이크 프라이아 그란데 와드.

죄로 인한 얼룩

15여년 전 내가 월계만 청녀였을 때, 우리 스테이크 청녀 회장은 나와 다른 여러 소녀들에게 있어 진정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갈색 곱슬머리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뿐만 아니라 그녀는 똑똑했고 조리있게 말했으며, 영적이었고 귀환 선교사였으며 갓 결혼한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멋지면서도 수수한 옷을 입었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의 표준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매력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가졌던 모든 꿈이 실현된 모습 그 자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번은 그녀가 청녀들을 위한 노년의 모임에서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녀의 화려하고 하얀 결혼 예복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꾸는 열여섯 살의 소녀들에게 그 무엇이 웨딩 드레스보다 더 기쁨을 설레게 했겠습니까? 저는 소년들과 우리의 밝은 미래에 대한 노년의 모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녀 회장이 말씀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계획은 달랐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순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고 우리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노트와 펜을 들고 연단에 서서 이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힘주어 말했습니다.

갑자기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짓을 하면서 말했고, 어떻게 해서인지 만년필 잉크가 웨딩 드레스 위에 튀기게 했습니다. 하얀 천 위에는 잉크로 인해 큰 얼룩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녀의 하얀 드레스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존재들이라는 것과 성적인 죄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잉크가 드레스에 얼룩을 남긴 것처럼 우리를 더럽힐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 언제라도 오로지 깨끗하고 순수하기를 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잠재 의식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이제는 절대로 잊을 수 없게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혹은 순결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 그녀는 우리에게 그 잉크가 장난품 가게에서 산 투명 잉크이며 몇 분 후면 그 흔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전에 잉크를 시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곳에 앉아 그녀가 말한 대로 되기를 바랐습니다. 잉크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 실물 공과는 내 마음속에 특별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 하얀 드레스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안자 클라린, 스웨덴 퀘테보르크 스테이크 보라스 와드

속죄의 권능과 영

나는 언제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2000년 5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막 열일곱 살이 되었을 때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친구 집의 문을 두드렸고 친구는 내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복음 토론을 듣고 성찬식에 참석한 후 친구와 나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와드의 여러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청년회에 소속되었습니다. 나는 매우 기뻐하고 청년 회장 마리아 호세 자매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내가 청년 프로그램을 마칠 무렵, 마리아 호세 자매는 나의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안식일, 그녀는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해 공부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고 우리 모두 제임스 이 탈매지 저 “예수 그리스도”를

한 권씩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우리는 모두 책을 갖고 교실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속제로 그 책의 일부를 공부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경전을 읽고 설명하는 과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신은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갯세마네와 갈보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내가 공과 반에서 본 가장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속죄의 권능과 영을 그토록 강렬한 느낌으로 이해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경전을 읽고 설명하는 과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신은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공과가 끝날 때 우리는 찬송을 불렀고 간단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나는 속죄와 구원의 계획에 대해 감사합니다. 나는 특히 성신이 복음과 속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길 바라셨던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일레인 크리스티나 파리아스 데 올리비아,
나이틸 브라질 포텐지 스테이크 파나티스
와드



신회의 본질

회복된 복음의 기초적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독특한 교리에 대해
설명하는 연재 기사 중
첫 번째 기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다른
기독교회들과 공통되는 여러가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은 바로 우리가 왜 선교사들을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고, 왜 교회 뿐 아니라 성전도 지으며,
왜 우리의 신님이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행복과 힘을 가져다 주는지를 설명해 줍니다.”라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사도는 말했습니다.¹

세 분의 개체

옥스 장로님은 계속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으로
구성되는 신회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회를 구성하는 이들



세 분이 서로 분리된
개체임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순한 영체가
아니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육신을 가지신
영화로우신 분이시며,
부활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심을
간증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만져볼 수
있고, 인격을 갖춘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세 분의 개별적 개체로 구성된 신회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대배도라고 부르는
타락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²

신약에 나오는 구주의 사도들이 사망한지 얼마 안 되어 그리스
철학으로 인해 명백하고 귀한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신의 본질에 대한 상반되는
교리들을 해결하려고 기원 전 325년 교회 전체에 걸친 회의를
니케아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나온 니케아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의 실체”라 선언함으로써 각각 독립된

존재로 구성된 신화의 개념을 변질시켰습니다.

또한 옥스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뒤이은 여러 종교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 사항과 성직자들과 철학자들의 저술로 인해,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교리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그 영향은 신화가 한 분으로만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여러 신조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³

회복된 신성한 진리

신화의 본질에 관한 진리는 1820년 봄,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으로 들어갔을 때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빛기둥이 나타났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해보다도 더 밝은 … 그 빛이 내 머리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에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조셉 스미스—역사 1:16~17) 조셉은 이 시현을 통해 다른 진리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 영화롭게 되신 분리된 개체이며 경전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은 “조셉 스미스가 1820년 어느 봄날 숲에서 경험했던 짧은 순간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성품과 실재성 그리고 본질에 대해 인간이 수세기 동안의 추측을 통해 도달한 결과보다 더 많은 빛과 지식과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⁴

1843년 조셉 스미스는 직접 받은 계시를 통해 신화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리라.”(교리와 성약 130:22)

인간의 본질

우리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 살과 뼈의 육신을 지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회복된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본질과 잠재력에 대해서도 알게



성 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은 복음의 첫째 원리입니다 … 그분은 한때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 사다리를 오를 때에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오를 때까지 한 발짝씩 올라가야 합니다. 복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번째 원리부터 시작해서 승영의 모든 원리를 알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원리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휘장을 거쳐 지난 후 훨씬 뒤의 일일 것입니다.”라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⁵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1838~1918)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 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주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류의 영의 부모이십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⁶라고 가르쳤습니다.

옥스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는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만큼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필멸의 육신을 하나님의 불멸의 영화로우신 존재와 동등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신화의 다른 두 분에 관해 계시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지상 생활의 목적과 육신의 사망 뒤에 부활한 존재로서 맞게 될 영원한 운명을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에서 볼 때, 지상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우리의 운명을 실현시키도록, 즉 그분처럼 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⁷ ■

주

1. “배도와 회복”,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83쪽.
2. “배도와 회복”,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83쪽.
3. “배도와 회복”,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84쪽.
4. Conference Report, 1960년 4월, 82쪽.
5. History of the Church, 6:305~307.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년), 354쪽.
7.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86쪽.

왼쪽: 첫번째 시현, 톰 홀드먼, 오른쪽: 아담, 멜 피스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선택의지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스스로 선택할 능력, 즉 도덕적 선택의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정하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기본적인 것입니다. 주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자녀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도록 허락되[었으며], 그런즉 그들은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모세서 6:56)

도덕적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발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교리와 성약 14:7)인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유로워 너희 스스로 행할 수 있음—영원한 죽음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택할 수 있음 기억하라.”(니파이후서 10:23)

이는 너무나도 간단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가 언제나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속한 결과를 얻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힘든 일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1895~1985)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즉시 고통과 슬픔과 완전한 형벌이 찾아오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즉시 기쁨, 평화, 보상이 찾아온다면 누구도 악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악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선을 행하겠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의지는 시험받지 않을 것이고 성품은 발달하지 않을 것이며 능력의 발전과 선택의지가 없을 것입니다. … 기쁨, 성공, 부활, 영생, 신성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일본 삿포로 스테이크 오비히로 와드의 도시오 가와다 형제는 이 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1972년 교회에 가입했고 그와 그의 아내 미유키는 1978년 하와이 라이에 성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가와다 형제는 오비히로 지부의 지부 회장, 일본 쿠시히코 지방부의 지방부 회장, 또한 일본 삿포로 선교부 회장단 보좌로서 여러 해 동안 봉사했습니다.

20여년 전 그가 가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와다 형제는 낙농가로서 그의 아버지 밑에서 일했습니다. 어느날 불행하게도 젓소와 모든 장비가 있던 커다란 헛간이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재정적으로 완전히 바닥난 그의 아버지는 돈을 벌리기 위해 농부 조합을 찾아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형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가와다 형제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었지만 부채 갚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가와다 형제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던 중, 당근을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감자를



도덕적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발하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배한 적은 있었지만 당근을 재배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씨를 심고 당근이 자라도록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동안 내내 가와다 형제는 교회에서 충실히 봉사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으며 십일조도 냈습니다. 가와다 형제와 가족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안식일 모임에 갈 때면 여러 이웃들이 비웃곤 했습니다. 밭일을 일주일 중 하루라도 안 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으며 추수기에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십일조를 내는 것도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바쳤습니다.

가을이 오자 가와다 형제가 재배한 당근은 유달리 짙은 색을 띠었으며 유별나게 크고 맛이 좋았습니다. 풍작을 거둔 그는 다시 농부 조합을 찾아갔지만 조합은 그가 수확한 당근을 자체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가와다 형제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결과 도쿄에서 농산물 유통업자를 찾으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개나 연결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와다 형제는 도쿄에서 대규모 유통업체를 찾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후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고 부친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직원을 둔 대규모 농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젊은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와다 형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침례, 신권, 성전 성약에서 맺은 약속에 충실하기를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안식일에 일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것, 십일조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쉽게 합리화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지시를 확고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진실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마태복음 6:33 참조)

저는 도시오 가와다 형제가 단지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농부로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즉각적인 보상 또는 그 어떤 세상적인 보상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 힘든 시기에도 용감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의지를 의롭게 사용하고 영원한 원리를 꿰뚫어 지킨 그의 모범은 따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주

1.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에드워드 엘 킴볼 편집(1982년), 77쪽.



안식일 준수

“때때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 규정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안식일은 가치있고 성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날입니다. 일과 오락을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생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공과를 준비하며, 복음을 공부하며, 명상하며, 병자와 곤경에 처한 자를 방문하며, 선교사에게 편지를 쓰며, 낮잠을 자며, 건전한 서적을 읽으며, 참석해야 할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1895~1985), “안식일-기쁨의 날”, 성도의 벗, 1978년 7월호, 4~5쪽.



도시오 가와다 형제의 간증

아 내와 제가 결혼했을 때 비록 농부일지라도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자고 서로 결심했습니다. 1978년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일회장단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일요일에 들뜬 기계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후기 성도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안식일-기쁨의 날”, 성도의 벗, 1978년 7월호, 1쪽 참조)

당시 우리는 다른 농부들과 기계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일할 때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동 농업에서 탈퇴하고 감자 재배를 그만두었습니다.

부름

저는 또한 당시 지부 회장이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으면 제 책임을 완수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소의 젖을 짜고 가축을 먹이고, 그런 후 교회에 가고, 점전을 하고 저녁 5시에 집에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 젖을 짰습니다. 모든 일을 마쳤을 땐 밤 10시경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숨을 내쉬며 “겨우 끝났구나”라고 말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희생

때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토요일 자정까지 일하기도 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자고 다음 날 교회에 간 적도 많았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돌아왔을 때 소 한 마리가 목장 울타리에 걸려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오는 안식일에 진초를 옮기지 못해 손상되어 수백만 엔을 손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일요일에도 사고가 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걱정한다면 안식일을 결코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인내

헛간이 타고 가축을 잃었을 때 몇몇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극복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방법 대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안식일을 지키고 고통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만 고민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당근 재배

당근 재배는 성공적이었으며, 우리의 삶은 마침내 비교적 순조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근 재배는 비가 오든 우리가 매주 일요일에 쉬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며, 부름이 무엇이든 좀더 쉽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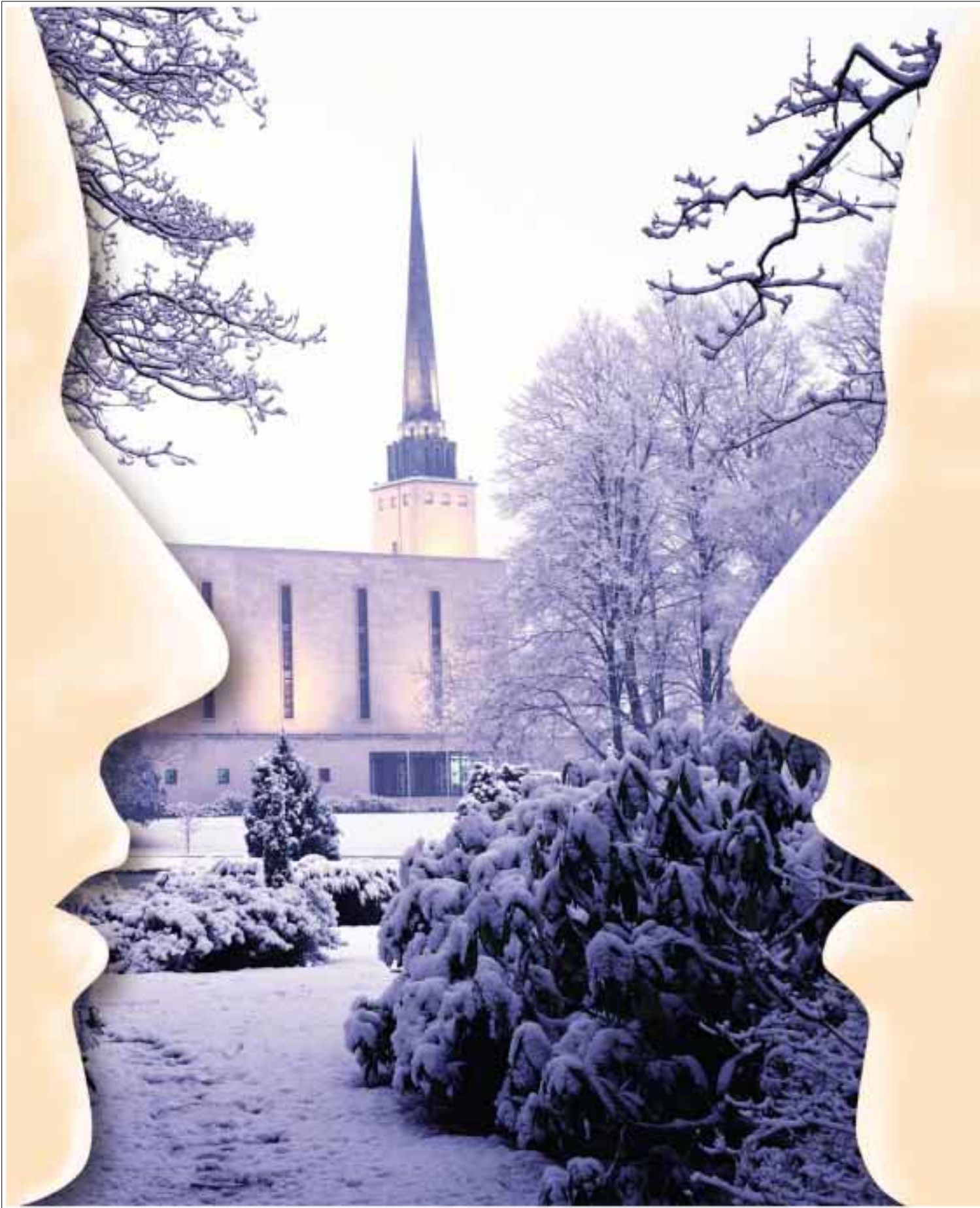
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간제 인력을 고용합니다. 정말 바쁜 시기에는 직원들이 일요일에도 일하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간단명료하게 우리는 일요일에는 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직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열심히 일하고 휴가도 좀처럼 내지 않습니다. 일요일에는 젊은 직원들은 자녀들과 하루를 보내고 좀더 나이든 직원들은 손자손녀들을 보러 갑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결정을 곳곳이 지켰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때 자녀들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들은 내용을 머리 속에 간직합니다.

우리 큰 아들이 일본 후쿠오카 선교부에서 봉사했을 때 선교부 회장님은 종종 “가와다 장로의 아버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감자 재배를 그만두셨습니다. 가와다 장로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라고 말하며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 행복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참석하고 선교사업을 했고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성전에 대해 이야기함

새나 버틀러
교회 잡지

아 버지께 내가 성전에서 결혼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릴 때 나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아버지께 결혼 승낙을 구할 때 긴장했던 것보다도 더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지만 다른 종교를 가지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결혼은 성전에서 할 거라고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적은 없었지만 실제로 결혼 날짜가 다가온 지금, 단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상처받거나 화를 내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해해 주셨을지라도 다른 몇몇 사람들은 교회가 왜 그토록 “엄격”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만이 성전에 대한 의문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전에 대해 비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선지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닌 신성한 것입니다.¹

성전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일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죠?” “왜 나는 여러분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죠?”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종종 하는 질문들과 후기 성도 성전에 대해 답을 찾는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는 왜 성전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세우라 명하셨습니다.²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성전을 세우라 명하셨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³ 이 헌납된 건물을 제외한 지상 그 어느 곳에서도 행할 수 없는 성스러운 의식을 바로 이 성전에서 수행합니다.⁴

성전에서 집행되는 의식들은 회원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고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기 때문에 성전은 그들에게 특별하며 성스러운 곳입니다.

“왜 나는 여러분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성전은 성스러운 성약을 맺는 성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교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교회 회원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께 내가 성전에서 결혼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릴 때 저는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일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질문을 가진 이들에게 답할 때 도움이 되는 답변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

“성전은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이곳이 성스럽지 않은 것으로부터 보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특권을 위해 기꺼이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라는 개념은 노력이 필요한 어느 분야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였을 때 부모님께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들은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지만 예비 교육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입학을 위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 지적, 영적으로 준비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 "Prepare for Blessings of the Temple," *Ensign*, 2002년 3월호, 18~19쪽.

최소 일 년 동안 교회 회원이었고 자신의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서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한 성인은 누구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요구 사항과 더불어 깨끗한 삶을 살고, 정직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십일조와 헌금을 낸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회원들은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성전에서 교회 회원들은 한 쌍의 남자가 결합하여, 즉 인봉 받아, 이 생과 영원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되도록 하는 영원한 결혼과 같은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합니다. 성전은 또한 회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성약을 맺는 배움과 예배의 장소입니다. 또한 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침례 및 확인과 같은 의식을 집행합니다. 성전 봉사자들은 자원 봉사자들입니다.

“왜 교회 회원들은 성전에 갈 때 작은 여행용 가방이나 일반 가방을 들고 갑니까?”

성전 안에서 교회 회원들은 평상복을 벗고 검소하며 수수한 흰 옷을 입습니다. 흰색은 순수와 경건을 상징합니다. 회원들은 가방 안에 그 성전복을 넣어 갑니다.

“성전 내부는 어떤 모습입니까?”

방문자들은 성전이 헌납되기 전 일반 공개 모임에 참석해서 성전 내부를 돌아다니며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으며 매우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성전 안에는 결혼 의식을 집행하기 위한 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방들이 있습니다. 성전 대지와 방문자 센터는 평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성전 내부 사진은 이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나와있는 두 개의 책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성전 운영 시간대 및 위치를 알고 싶으면,

www.lds.org/templesfh로 가시면 됩니다. 성전에 대한 기사를 더 많이 찾고 싶으시면 www.lds.org의 “Church magazine(교회 잡지)”으로 가서서 “Gospel Library(복음 자료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정보를 더 원한다면 www.lds.org/temples로 가십시오. 성전의 역사와 목적,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사업의 관계에 대해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전(물품 번호 35863)

또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물품 번호 36793 320)을 보시면 됩니다. 또한

www.lds.org에서 영문으로 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복음 자료실)”, “Church Publications(교회 출판물)”, “Curriculum(교과 과정)” 그후 “Optional Courses(선택 과정)”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주

1. “The Purpose of Temples”, David O. Mckay, *Ensign*, 1972년 1월호, 38쪽 참조.
2. 열왕기상 22; 에스라 3~6; 스가랴 6:13; 니파이후서 5:16; 힐라맨서 3:14 참조.
3. 교리와 성약 88:119; 97:12, 15 참조. 성전의 역사와 목적에 대해 더 알고자 한다면, 보이드 케이 패커, “거룩한 성전”, *성도의 빛*, 1992년 6월호, 14쪽 참조.
4. 교리와 성약 124:37~40 참조.



여러분의 표준이 낮아지고 있습니까?

옷이 너무 꼭 끼고 너무 짧거나 노출이 심할 경우 교회 표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표준을 세상의 것에 맞추기 위해 변경시키지 마십시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4~16 참조)

착륙할 곳이 없었다

케네스 비 스미스

19 51년 1월, 우리는 북극권에서 남쪽으로 160킬로미터 떨어진 알래스카 주 페어뱅크스에 살고 있었다. 나는 미 공군 조종사였으며 알래스카 주 놈(Nome)에서 2주간 여러 지역으로 화물을 수송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알래스카의 동절기는 낮 시간이 매우 짧아, 해가 지평선 위에 있는 동안 햇빛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잠시뿐이었다. 1월에는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이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았다. 나는 시베리아의 차키 반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으며, 놈에서는 베링 해를 건너 약 320킬로미터 떨어진 세인트 로렌스 섬의 한 원주민 마을인 갬벨의 작은 기지에 화물을 수송하는 중이었다.

당시 세인트 로렌스 섬에는 활주로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안 근처의 얼어 붙은 호수를 이용했다. 호수 표면의 약 48센티미터 두께의 얼음은 화물을 적재한 C47 수송기가 착륙하기에 안전한 곳이었다. 그러나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뜨는 오전 11시 30분쯤에 도착하여, 한 시간 후 해가 지는 오후 12시 30분에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했다.

기상 통보관이 하루 종일 날씨가 좋을 것이라고 장담했기 때문에 나는 연료를 가득 채우는 대신 갬벨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낼 약 450킬로그램의 화물을 더 싣기로 했다. 비행기에 채워져 있는 연료는 놈에서 갬벨을 왕복하고도 30분을 더 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우리는 오전 10시에 이륙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구름 사이로 몇 개의 별들이 보였다. 북극의 해가 막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계획대로 갬벨에 착륙했으며, 병사들이 기빠하는 가운데 화물을 내려 놓기 시작했다.

다시 이륙할 준비가 되었을 때는 벌써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륙하자마자 우리는 갬벨에 있는 기상 관측소에서 놈 지역의 날씨를 확인해 보라는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우리는 놈에 무선을 보냈으며, 곧 그곳에 북극의 강한 눈보라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구름으로 인해 한 시간 안에 지상의 가시 거리가 1.6킬로미터 이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놈 공항에는 레이더 착륙 시스템 장비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놈 공항은 착륙을 폐쇄했다. 겨우 30분 정도를 운항할 수 있는 연료로는 인근 공항까지 갈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대한 폭풍이 급속도로 몰려오는 상황에서 북부 알래스카에는 우리가 착륙할 만한 공항이 없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처한 상황은 위태로웠다. 외부 온도는 영하 40도에, 풍속은 시속 55킬로미터였기 때문에, 낙하산을 메고 비상 탈출한다는 것은 거의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매일 기도를 드렸지만, 주님의 도움이 그날보다 더 간절했던 적은 없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할

일을 알려 주시도록 간구했다. 내게는 페어뱅크스에 아내와 세 자녀가 있었으며, 부조종사와 수석 승무원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지 않는 한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약 한 시간 동안 비행한 후, 나는 우리가 불시착해서 살아 남을 경우 누군가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놈 공항 근처 어딘가에 착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놈 통신소에서는 알래스카 공군 사령부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렸으며 사령부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급히 알고자 했다. 내가 놈에 착륙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현재의 기상 상태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대안은 없었다.

놈에 접근하면서 나는 무선 통신사에게 연료가 허락하는 한 여러 차례 저공 비행을 시도하면서 구름 사이로 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우리는

세 차례나 시도했으나 눈을 멀게 하는 듯한 눈보라 외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네 번째 시도를 하면서 나는 아주 짧은 순간 빨간 불빛을 보았다. 그리고 고도를 최대한 낮췄을 때 전에 어디서 보았는지 알아챌 수 있을 만큼의 짧은 순간 동안 흰 불빛을 보았다. 나는 활주로 위에 있다고 거의 확신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충돌하거나 어찌면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예상했다.

하지만 비행기는 활주로 한가운데 착륙했으며 아무런 문제도 없이 멈추었다.

그러한 착륙의 가능성은 비율이 천문학적 숫자에 이를 만큼 희박하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비행기를 그렇게 착륙시킬 수 없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 주셨는가? 첫째, 공항 근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착륙을 시도할 곳을 알려 주셨다. 둘째,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그분은 나를 활주로로 인도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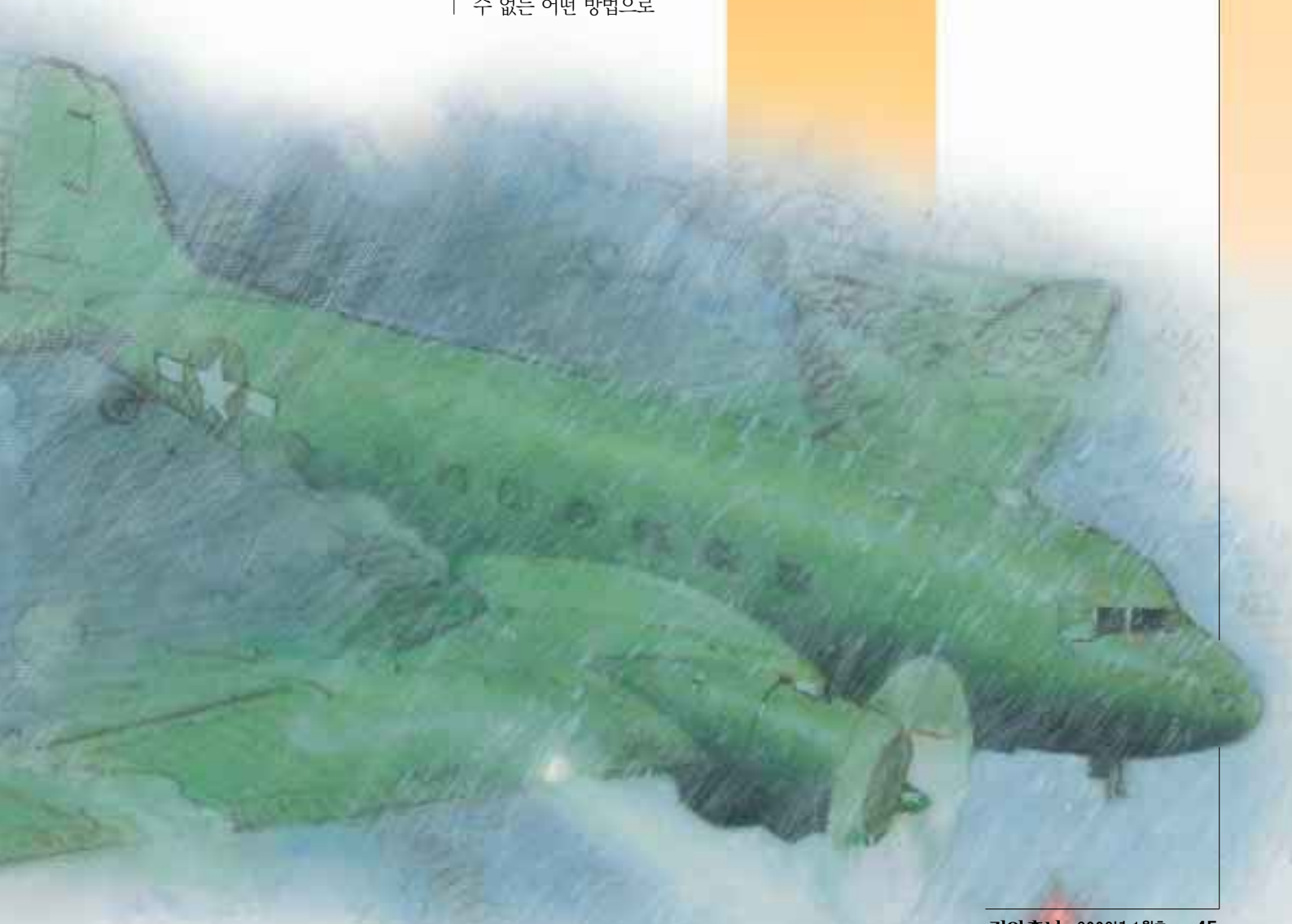
나는 기도의 힘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나는 우리가 열심히 그분을 찾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것을 안다.

■ 케네스 비스미스는 유타 세인트 조지 모닝사이드 스테이크 모닝사이드 제5와드 회원이다.

우리는 구름 사이로 틈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 차례나 시도했으나 눈을 멀게 하는 듯한 눈보라 외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아버지를 위한 선물

실비아 지라드

내가 두 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였을 때, 나의 아버지는 끔찍한 사고로 돌아가셨다. 나에게도 일곱 살 된 언니와 여섯 살 된 오빠가 있었다.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혼자 세상에 맞서 나아가야 했던 어머니의 삶은 몹시 고달팠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머니는 내게 아버지가 여행을 떠나 집에 없다고 하셨다. 아마도 너무나 슬픈 나머지 내게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나 보다.

나는 다시 아버지를 만나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고 그의 팔에 안길 날을 기다렸다. 내 생일이 돌아왔고, 나는 계속 기다렸다. 성탄절이 돌아왔고, 나는 또 계속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내 포래의 이웃 여자 아이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는 서글피 울었다. 그 이후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욱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것은 너무나 잔혹하게 느껴졌다.

세월이 흘러 나는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왔다.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좋은 남자와 결혼도 했다. 그리고 그는 간증을 얻고 침례 받기로 했다.

교회 회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왔다. 우리는 가족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즉, 가족의 사슬에서 따로 떨어져 있던 고리가 나머지 가족과 함께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부친은 성전 의식을 통해 대리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부모에게 인봉될 수 있으며 나도 결국은 아버지에게 인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나의 아버지를 위해 침례를 받았으며 우리는 필요한 모든 성전 의식이 집행되도록 했다. 주님의 영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어린 시절 내가 겪은 고통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축복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가족이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모든 성탄절이나 생일보다도 더 좋은 것이었다.

이제 아버지는 그의 부모에게 인봉되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인봉되었다. 내가 경험한 행복의 결과로 나는 다른 가족들이 함께 연결되도록 많은 시간을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데 바치고 있다. 성전 사업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준다. ■

실비아 지라드는 유타 매그나 센트럴 스테이크 스펀서 제5와드 회원이다.



문을 열지 말아라!

재닛 던

그날 밤은 몹시 추웠으며, 눈이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나는 집안에서 따뜻하고 안전했으며 세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다. 남편은 8킬로미터쯤 떨어진 교회에서 감독단 모임에 참석 중이었다. 8시 30분쯤 되었을 때 밖에서 예기치 않은 노크 소리가 들렸다. 순간적으로 나는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확신, 즉 위험에 대한 경고는 예전에 것처럼 강하게 온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누구냐고 묻는 나의 질문에 시동생이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남편의 유일한 형제이자 교회 회원인 마이클은 11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매우 좋았으며 그가 방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어찌면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며칠 머물다 가려고 왔는지도 모른다. 이런 날씨에 전화선이 끊겨 연락도 못했다는 것은 더욱 놀랄 일이 아니었다. 나는 안전함과 안도감을 느꼈어야 했고 이런 추운 겨울 밤에 우리를 찾아온 그를 집안으로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당연했다.

나는 내가 받은 강한 느낌과 내가 왜 그에게 교회로 가서 남편을 만나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잠시 놀란 듯한 침묵이 있고 나서 시동생은 다소 이상한 어투로 자신이 기차로 여행한 후 버스를 갈아타고 우리집까지 왔으며, 눈이 점점 쌓여간다고 말했다.

강렬한 속삭임은 계속 나에게 어떤 이유로든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차분하게 미안하다고 설명하고는 교회로 가서 남편을 만나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날 저녁 내내 나는 내 행동을 곰곰이 돌이켜 보았다. 가없는 시동생이 여러 시간 동안 기차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추운 겨울 저녁에 그를 돌려보낸 것이다. 어느 누가 그렇게 무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동시에 내가 위협에 처해 있으며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증언 또한 부인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거의 잠들어 있었다. 우리는 아까의 상황에 대해 아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고, 남편은 동생이 그를 만나러 왔으며 지금 아래층에서 자고 있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시동생에게 내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고민했다. 그가 화를 내지는 않을까?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아침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다. “도련님, 어제 저녁 일에 대해서 ...” 하고 말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가 화를 내기는 커녕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젯밤 형수님이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그때까지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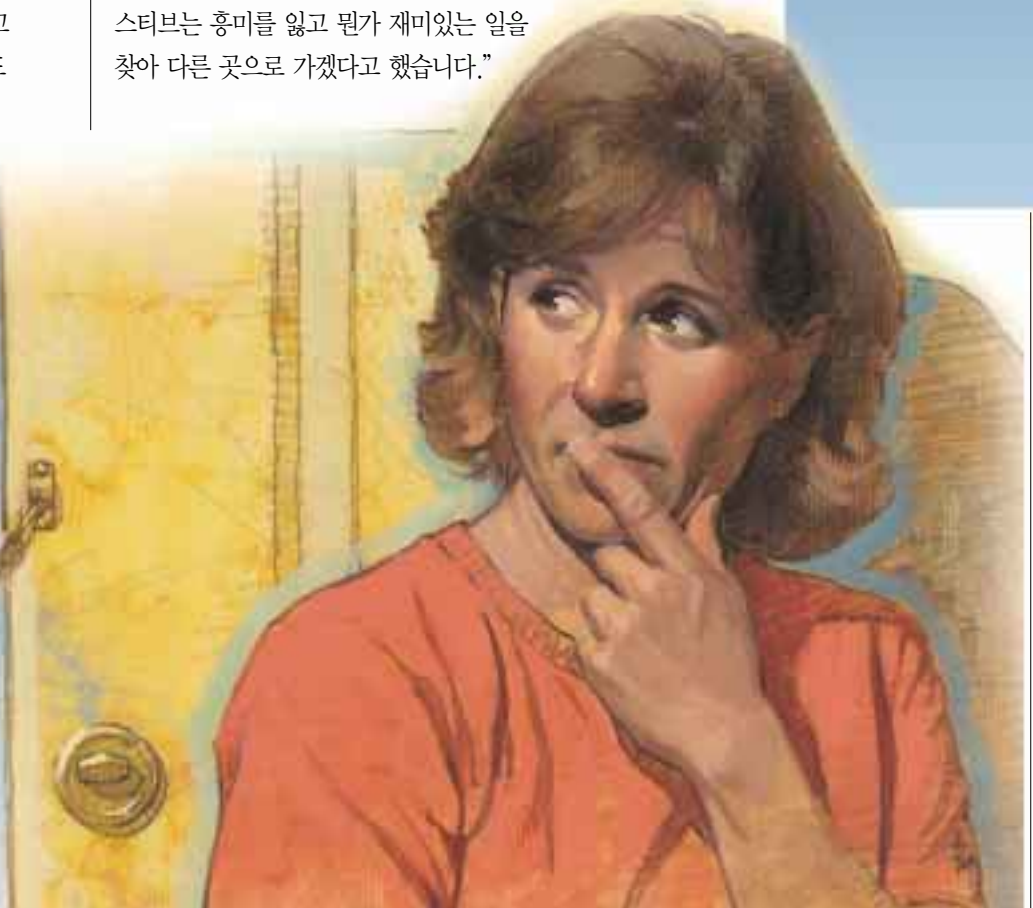
몰랐다. 그는 기차에서 옛날 학교 친구였던 스티브를 만났으며, 스티브가 마약을 심하게 복용해 이성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마이클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두 말한 뒤였다. 스티브는 여행을 하는 동안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당장 잠잘 곳과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압적인 태도로 마이클과 동행해 우리 집까지 왔으며 시동생은 그가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요, 형수님, 저는 문 밖에 서서 형수님이 제발 문을 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까지 먼 길을 가게 되자 스티브는 흥미를 잃고 뭔가 재미있는 일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겨울 밤에 우리 가족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런지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단지 이 지상에서 가장 값진 한 가지 교훈, 즉 성신의 속삭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따름이다. 논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의지함으로써 안전하게 보호 받을 것이다. ■

깨끗 댈은 영국 리즈 스테이크 리즈 제4와드 회원이다.

노 크 소리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나는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지도력에 관한 기사 모집

훌륭한 지도력은 이야기와 모범을 통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주는 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영감 받은 지도자에 의해 축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다른 리아호나 독자들에게 나누십시오. 기사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cur-liahona-imag@ldschurch.org 혹은 Leadership Experiences, Liahona,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4,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기사에 여러분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와드와 스테이크(혹은 지부 및 지방부)를 포함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작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저는 슬픔에 대처하느라 몹시 힘들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이 된 지 16년이 되었으며 이러한 일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쯤 되던 어느 날 저녁, 저는 2004년 9월호 리아호나를 집어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후기 성도의 소리에서 클라우디아 올란다 오르티스 에레나가 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사는 곧 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글쓴이가 경험한 것은 제 경우와 너무 흡사했으며, 그 기사를 세 번이나 읽고 나서 저는 많은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더 큰 평안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제 간증은 강화되었으며, 죽음은 참으로 하나의 시작일 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아호나와 그 기사에 대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줄리마르 로드리게스 카스트로, 콜롬비아 바랑키야 히포드로모 스테이크 코스타 에르모사 와드



많은 악이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으며 참된 교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다달이 우리에게 훌륭한 선물을 마련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펠릭스 오마 사르미엔토 파라다, 베네수엘라 산 크리스토팔 스테이크 카파초 지부

힘든 시기에 주어지는 해답

리아호나는 많은 힘든 시기에 해답을 보여 주었으므로 우리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이 잡지는 리하이의 가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 참된 나침반입니다. 리아호나가 우리 가정에 오도록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프란시스코 드 아시스 수사 도스 레이스와 마르타 리제인 산타나 드 수사 레이스, 브라질 포탈레자 사우스 스테이크 베네자 지부

리아호나는 신앙을 키우도록 도와 줍니다

제가 처음으로 리아호나를 접한 것은 한 친구-그는 나중에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가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잡지를 갖고 왔을 때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칠레에서 선교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잡지를 무척 좋아했으며 회원들이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그것을 갖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현재 통가에서 연로한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공과를 가르칠 때 리아호나를 사용합니다. 리아호나에 대해 감사합니다.

매리 루 엘스위스 자매, 통가 누크알로파 선교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구함

복음이 주는 위대한 축복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리아호나는 우리를 교화하고 강화하며 현대의 문제들을 극복하도록 해줍니다. 세상에는



친구들



높은 길을 걸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 랑하는 어린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의 힘ियो, 미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지나간 세대의 결과요, 다가올 모든 일들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혼자자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수십만 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무언가 신성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분과 이야기할 때 귀 기울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용한 순간에 저는 훌륭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와 그와 더불어 오게 될 무서운 유혹에 대해 생각합니다. 앞으로 십 년 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으며, 어떤 선택은 당시에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되고자 결심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신과 육체와 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여러분은 성취와 행복으로 이어지는 높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는 노력과 희생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미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힝클리 회장은 우리에게
기도, 신앙 및 계명을 지키는
일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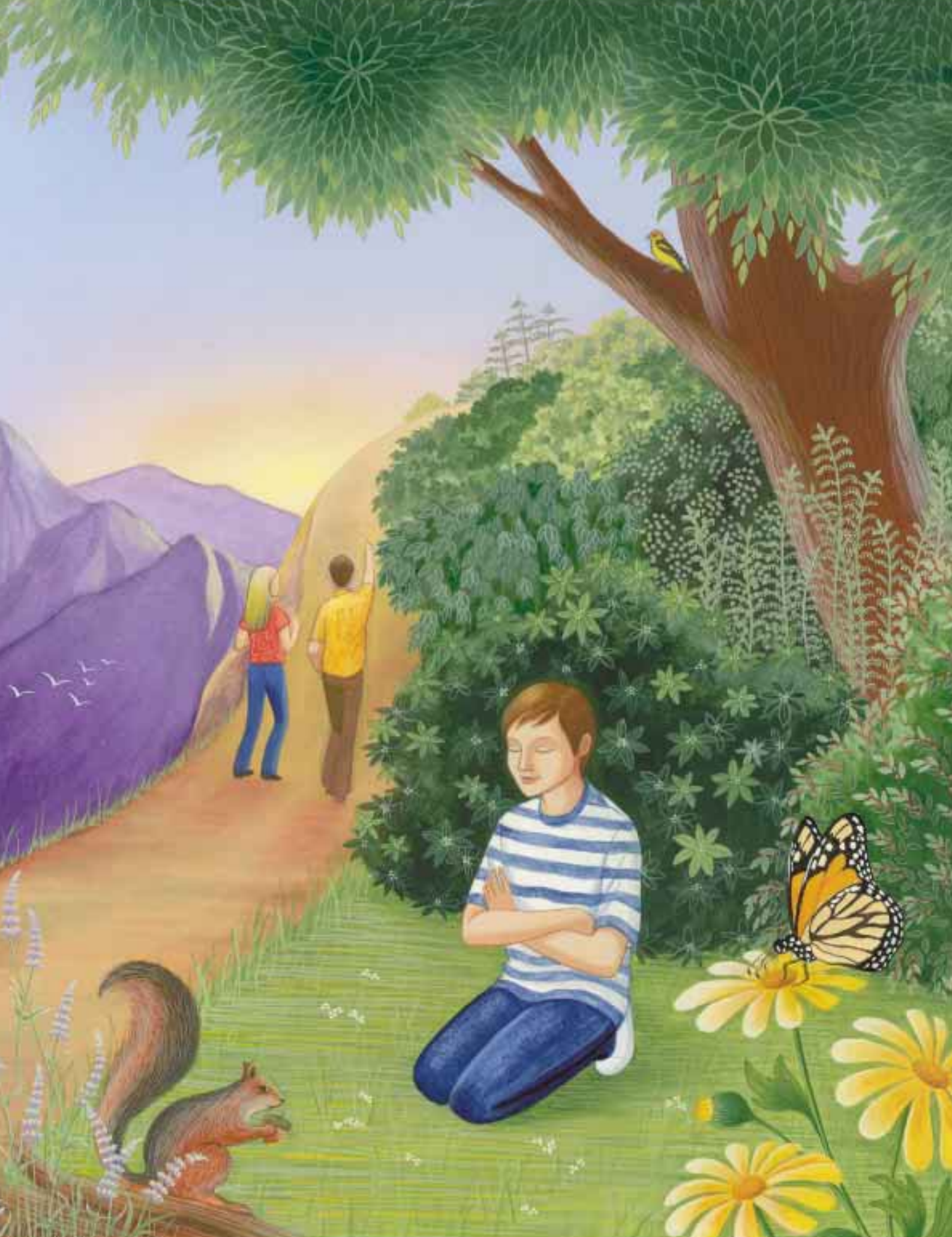
기울이고 최선의 재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절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도움은 여러분이 전진하도록 격려와 힘을 줄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친구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도울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고 고통 받는 친구들을 아낌 없이 도와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친구, 즉 여러분을 격려하고, 곁에 있어 주고, 여러분이 바라는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즐기는 것을 즐기고, 여러분이 거부하기로 한 약을 거부할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결코 혼자서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무릎 꿇고 그분에게 기도하기를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란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실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는 그 응답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나누기에 지나치게 심각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30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여러분 앞을 비추는 빛이 되고, 여러분의 하늘에서 북극성이 되어야 합니다. ●

2004년 4월 연차 대회 청년 모임 말씀 중에서



경전에 있는 약속들



창세기 9:12~17

Five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경전에 있는 약속들



모로니아서 10:3~5

Five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with the text '교리와 성약 59:9~16' written on the second line.

경전에 있는 약속들



제3니파이 27:6

Five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경전에 있는 약속들



마태복음 11:28~30

Five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with the text '말라기 3:10' written on the second line.

경전에 있는 약속들



앨머서 40:3~4, 23

Five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경전에 있는 약속들



요한복음 14:27

Five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with the text '교리와 성약 34:5~8' written on the second line.

경전에 있는 약속들

“이는 그가 너희에게 하신 그의 약속을 다 이루실 것임이니,
이는 그가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의 약속을
이루셨음이라.(엘마서 37:17)

린다 매글비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해야 할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약속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소년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느 교회가 참된지를
진지하게 묻는다면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그 소년의 이름이 조셉 스미스라고
추측했을 것입니다. 그는 경전을 공부했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드렸으며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그에게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조셉은 야고보서에 있는 약속이
참되다는 것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응답들이 하늘에서 오는 분들을
통해서보다는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옵니다.

경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전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대해 알게 됩니다.

경전 책갈피

친구들 4쪽에 있는 책갈피를 만들기 위해 굵은 선으로 된
부분을 자르고 점선을 따라 접는다. 각 성구를 읽고, 빈 칸에
주어진 약속들을 적는다. 매일 경전을 읽을 때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책갈피를 경전에 끼워 둔다.

주: 이 지면을 잡지에서 떼어내고 싶지 않다면 인터넷 www.lds.org에서 이 활동을
찾아 복사하고 인쇄할 수 있다. 영어를 사용할 경우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다른 언어인 경우 월드 맵을 클릭한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제언

1.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다. 애굽의 이스라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다.(출애굽기 5장
참조) 주님은 그들을 속박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출애굽기
6:6~7 참조)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바로가 그들을 보내겠다고 할 때까지
제앙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어린이들을 작은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다음과 같은 성구가 적힌 종이를 나누어 준다. (1) 출애굽기
7:20~21; (2) 출애굽기 8:6; (3) 출애굽기 8:17; (4) 출애굽기 8:24; (5)
출애굽기 9:6; (6) 출애굽기 9:10; (7) 출애굽기 9:23; (8) 출애굽기
10:14~15; (9) 출애굽기 10:22. 각 그룹에게 성구를 함께 읽고, 어떤
제앙이 보내졌는지 알아보게 한 후,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게 한다.
그림을 모으고, 그룹에게 제앙에 관한 이야기를 발표하게 한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열 번째 제앙을 겪을 때까지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고 설명한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지나갈”
때 보호 받았으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출애굽기 12~14장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내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

2. 각 어린이를 위해 친구들 4쪽에 있는 책갈피를 복사하거나 첩판에
참조 성구들을 적는다. 어린이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성구를 찾아 읽고 약속을 찾게 한다. 각 그룹에게 성구를 읽거나 요약하여
발표하게 하고 약속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각 그룹에서 발표하는 동안 어린이들에게 책갈피의 빈 칸에 약속을
적도록 한다. 그들에게 책갈피를 경전에 끼워 두고 매일 읽을 때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한다. 우리에게 대한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간증한다.
그들의 약속은 우리 모두를 축복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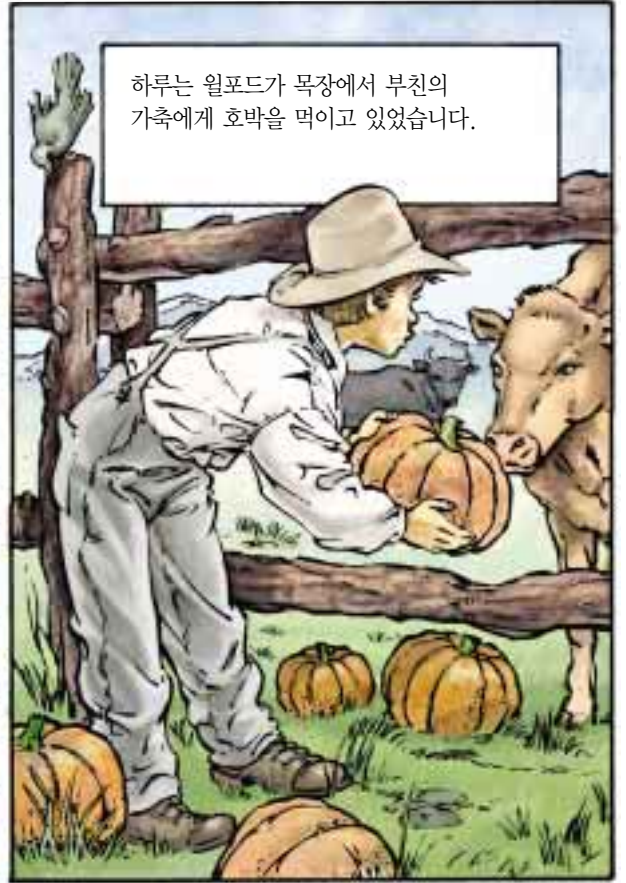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생애에서
섭리에 의해 구조됨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성장하는 동안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을 때 그는 물이 끓는 솥에 빠졌으며, 여러 개의 뼈가 부러지고, 황소에게 배를 걷어차이고, 나무에서 떨어졌으며, 눈보라 속에서 거의 얼어 죽을 뻔하고, 병든 개에게 물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윌포드가 목장에서 부친의 가족에게 호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먹는 것을 보고 호박을 하나 찢기로 했습니다.

저 녀석이 암소에게 준 호박을 먹었지! 누가 대장인지 보여 줘야지.





황소는 윌포드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들판 언덕 아래로 그를 쫓아갔습니다.



운 좋게도, 윌포드는 발이 걸리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고, 들고 있던 호박이 손에서 미끄러져 멀리 날아갔습니다. 황소는 윌포드 위를 뛰어넘어 호박을 쫓아가서는 그것을 빨로 짓이겼습니다.

만일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소가 나를 갈기갈기 찢었을 거야.



세월이 흐른 후 윌포드는 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소년 시절에 겪었던 모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셨음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상에서 내가 보호 받은 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보살핌 덕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내가 극도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수잔 애링턴 매드슨, The Lord Needed a Prophet (1990), 59~60쪽에서.

2006년 나의 목표



브리트니 쉐셀라
교회 잡지

1 월은 새로운 한 해의 목표를 세우기에 좋은 달이다. 시작하기 위해 친구들 9쪽에 있는 도표 “2006년 나의 목표”를 잘라내어 두꺼운 종이 위에 붙인다. 여섯 개의 작은 백지 조각을 잘라내고 그 위에 목표를 적는다. 이 종이 조각들은 도표의 각 부분을 위한 것이다. 종이 조각을 테이프를 사용하여 도표에 붙이고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둔다.

목표를 기록한 후 이 페이지에 있는 라벨로 병, 상자, 혹은 다른 용기를 장식함으로써 “2006년 나의 목표 타임 캡슐”을

만든다. 목표를 완수할 때마다 도표에서 떼어내 캡슐에 넣는다. 그런 다음 그 부분을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크게 놀랄 것이다. 다음 성탄절, 한 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선물로 캡슐을 나무 아래 놓아둘 수 있다. 그분들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배우고 성장할 때 기뻐하신다. ●

주: 이 지면을 책에서 떼어내고 싶지 않다면 인터넷 www.lds.org에서 이 활동을 찾아 복사하고 인쇄할 수 있다. 영어를 사용할 경우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다른 언어인 경우 월드 맵을 클릭한다.

나의 2006년 목표

타임 캡슐

이름 _____

2006년나의 목표



가정 및 가족



관심 있는 것들과 취미



영적



신체적



친구들



학교

친구 사귀기

페루 트루히요의 아벨과 카밀라 레온 시푸엔테스

마빈 케이 가드너





무 용과 노래. 플루트 연주. 수영과 달리기 경주. 축구와 농구. 이것들은 페루 트루히요 라우렐레스 스테이크

로스 라우렐레스 워드 소속인 카밀라 레온 스푸엔테스와 그녀의 오빠 아벨이 즐기는 활동들이다.

또한 그들은 집안 일, 네 살짜리 쌍둥이 여동생들 마리아 페와 마리아 피아, 그리고 갓난아기 발레리아 돌보기 등 다른 일들로도 바쁘다. 또한 마당에 있는 새장 속의 열두 마리 화려한 색깔의 잉꼬를 돌보기도 한다. 카밀라는 잉꼬에게 먹이를 주면서 이렇게 설명한다. “엄마는 새들이 항상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이 새들의 생일이래요.”

카밀라와 아벨은 또한 다른 일로도 바쁘다. 바로 준비를 갖추는 일이다. 여덟 살 된 카밀라는 최근 침례와 확인을 받았으며, 열한 살 된 아벨은 곧 아론 신권을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 둘 다 인생에서 이러한 단계를 신중히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카밀라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고 교회에서 강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침례 받기를 원했어요.”

아벨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아론 신권을 받고 싶어요. 아론 신권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커다란 가치가 있는 은사가 될 거예요. 구주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사도들에게 성찬을 주셨어요. 제가 집사가 되면, 와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찬을 전달할 수 있어요. 신권을 가지면 정말 좋을 거예요.”

아벨은 학습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의 부모인 휴고와 매리 앤은 그가 열심히 일하고 마음씨가 고우며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아벨, 카밀라, 그리고 다른 자녀들이 인생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돕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찾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의 아버지는 말한다.

가정의 밤과 부모와 일대 일로 나누는 대화는 그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카밀라는 이렇게 말한다. “가정의 밤에서 우리는 노래하고,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활동을 하고, 다과를 먹어요. 우리 모두, 심지어 어린 쌍둥이 동생들까지 차례로 모임을 사회하고, 공과를 하고, 음악 지휘를 해요.”

아벨은 최근 가정의 밤에서 스테이크 회장이신 아빠가 가르친 공과를 기억한다. “아빠는 신권에 대해 가르쳤어요. 아빠는 신권의 맹세와 성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며 우리는 신권을 통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신권을 받기 위해 잘 준비하고 싶어요.”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 또한 중요한 준비 사항이다. 매일 아침 부모가 자녀들을 깨울 때, 그들은 모두 부모의 침대로 모인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기 전에 찬송가를 부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차례대로 경전을 읽는다. 그들은 경전에 있는 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아침 일찍 모두를 깨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로 아이들이 경전을 좀더 잘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아벨은 아론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카밀라는 최근에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왼쪽: 부모, 할머니, 그리고 쌍둥이 여동생들과 함께. 아래: 카밀라의 경전 가방에는 페루 리마 성전이 수놓여 있다.





위: "가정의 밤에서 우리는 노래하고,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활동을 하고, 다과를 먹습니다."라고 카밀라는 말한다. 아래: "제가 집사가 되면, 와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찬을 전달할 수 있어요. 신권을 가지면 정말 좋을 거예요"



아이들을 아무런 보호 없이 학교에 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좀더 준비된 상태로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아침에 읽은 것을 낮 동안에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밀라와 아벨은 또한 초등학교에 참석하고, 금식하고, 십일조를 바치고, 연차 대회를 시청하는 동안 필기를 함으로써 준비한다. 교회에 갈 때는 경전을 갖고 간다. 가족 모두가 여덟 시간 동안 여행해 페루 리마 성전에 가기도 한다. 아이들은 부모가 성전에 있는 동안 성전 경내를 돌아본다.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카밀라는 이렇게 말한다. "감독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제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어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여쭙어 보았어요. 하나님은 제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영혼으로 응답을 느꼈어요."

아벨은 감독과 만나 접견을 하면서 아론 신권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감독님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다른 지도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아벨과 그의 가족은 최근 신권 예비 모임에 참석했다. 그 해에 12세가 되는 모든 소년은 부모 및 가족과 함께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초대 받았다. 그들은 여러 지도자, 교사 및 한 소년의 말씀과 간증을 들었다. 아벨과 몇몇 친구들은 앞에 나가 신권에 관한 노래 "준비된 소년"(어린이 노래책, 88쪽)을 불렀다. 부모들은 아들들에게 준비를 격려하는 편지를 전해 주었다.

"저는 그곳에서 영을 느꼈어요."라고 아벨은 말한다.

카밀라와 아벨은 모든 준비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밀라는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께 침례를 받았을 때 저는 기뻐요. 성신의 은사를 받았을 때 저는 마치 성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성신은 제가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그분은 제가 옳고 그른 것을 알도록 도와 줍니다."

성신은 최근에 카밀라가 자신의 표준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발표를 할 때 무용을 하고 싶었지만, 무용에 참여하는 여자아이들의 의상은 짧은 스커트였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기도해 보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후에 무용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생님은 제가 긴 스커트를 입어도 된다고 하였고 할머니가 스커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무용을 하면서 기분이 좋았고 성신이 저와 함께하는 것을 느꼈어요. 긴 스커트를 입고 춤을 추는 아이는 저 하나뿐이었지만 아무도 놀리지 않았어요. 몇몇 친구들은 제게서 뭔가 배웠다고 했어요."

아벨과 카밀라는 침례 및 확인, 그리고 신권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인생에서 다른 중요한 행사를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들은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고, 성전에서 결혼하고, 부모가 되며, 교회에서 봉사할 때를 고대하고 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훌륭한 결정을 내리고 싶어요."라고 아벨은 말한다. ●

마빈 케이 가드너는 유타 플래젠트 그로브 이스트 스테이크 배를 크리크 제7와드 회원이다.

경전 인물 오리 인형



여러분이 경전 이야기를 할 때, 이 인형은 노아, 베드로, 리하이와 같이 경전에 있는 어떤 남성 인물도 나타낼 수 있다.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인형을 두꺼운 종이에 붙이고 색칠해서 오려낸 다음 막대기 인형, 플란넬

보드 인형, 혹은 종이 봉투 인형 등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 개를 만들어 각각 머리와 옷 색깔을 다르게 칠한다. ●



막대기 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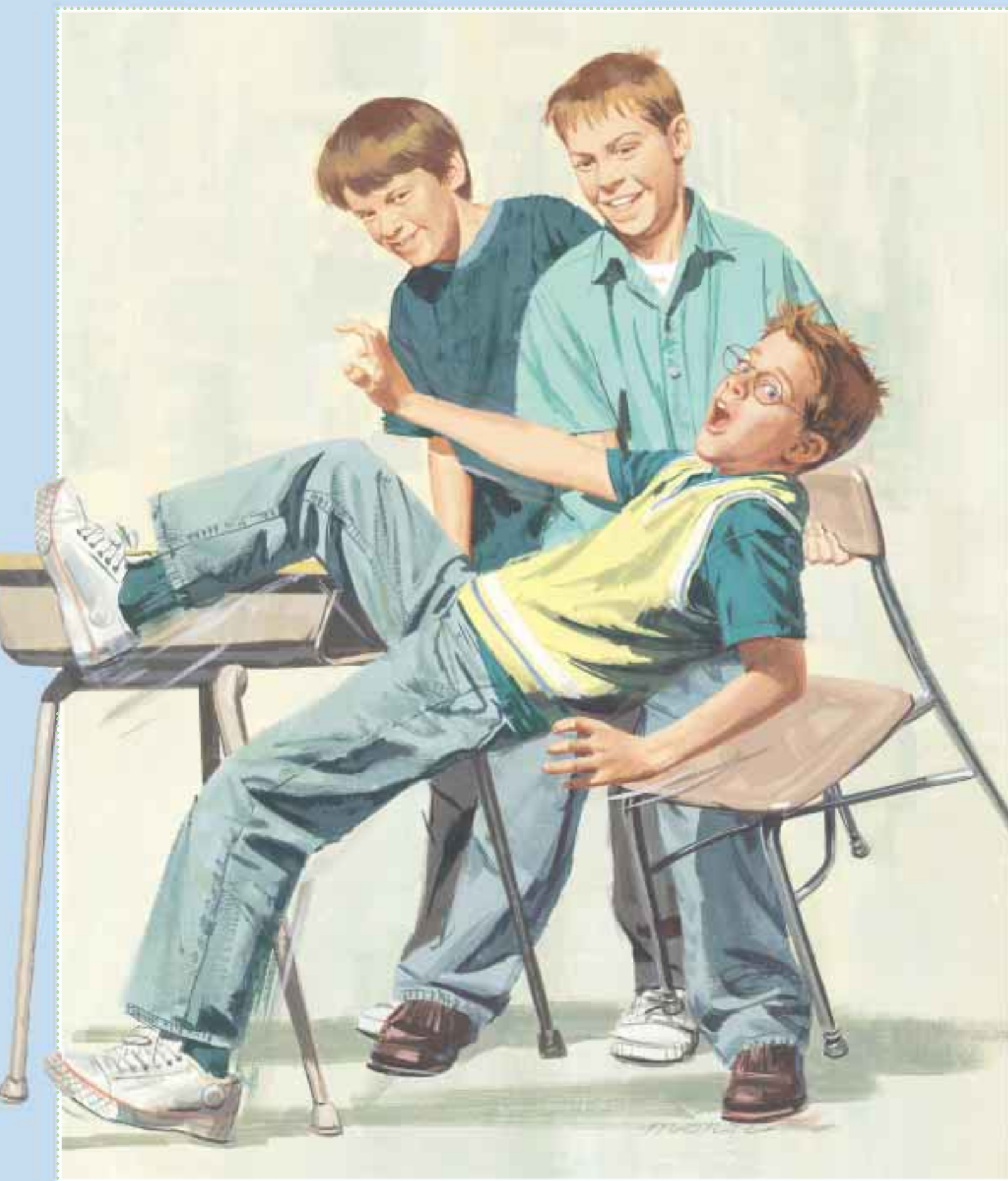
주: 이 지면을 잡지에서 떼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 인터넷 www.lds.org에서 이 활동을 찾아 복사하고 인쇄할 수 있다. 영어를 사용할 경우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다른 언어인 경우 월드 맵을 클릭한다.



플란넬 보드 인형



종이 봉투 인형



용감하게 행함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역대상 28:20)

샤르메인 거블러 워노크

저자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

몸 이 아파 학교에서 구토를 하던 날은 내게 있어 최악의 날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날이기도 했다. 그날 로셀라가 나의 단짝 친구가 되었다.

나는 토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로셀라가 종이 타월을 갖고 와서 바닥 치우는 일을 도와 주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냐, 괜찮아. 난 커서 의사가 될 거야.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 방과 후 그녀는 나를 집까지 배래다 주었다.

로셀라는 언제나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았다. 한번은 몇몇 소년들이 독 없는 뱀을 죽이려고 할 때, 뱀을 구해 주기도 했다. 그녀는 뱀을 집까지 데리고 와서 뒷마당에 있는 수풀 속에서 살도록 놓아 주었다. 나는 반짝이는 검은 눈을 가진 뱀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뱀이 달려들어 물지나 앓을까 하고 걱정했다. 그러나 로셀라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루는 음악 시간에 로셀라와 옆 자리에 나란히 앉게 되었다. 봄에 있을 행사를 위해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데 교내 방송을 통해 음악 선생님을 부르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은 모두 조용히 있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지만 한참이 되어도 오지 않으셨다.

몇몇 남자 아이들이 교실 반대편에 있는 쓰레기통을 향해 종이뭉치를 던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바닥은 종이로 뒤덮였다.

종이를 던지던 아이 중 하나가 앨런이라는 소년에게 말했다.

“이봐, 앨런, 네가 어지러운 교실을 좀 봐. 가서 종이들을 줍는 게 좋을 걸.”

앨런은 종이를 던지지 않았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를 줍기 시작했다. 한 번에 한 뭉치씩 주웠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앨런의 안경은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머리 위 여기저기에 뭉쳐져 있었다. 그가 태어날 때 뭔가 잘못되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 인해 그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는 가끔 걸려 넘어지거나 실수를 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아이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했으며 자주 미소를 지었다.

앨런은 종이를 모두 주운 뒤 자리로 돌아갔다. 다른 소년들은 모두 빙글거리고 있었다. 앨런이 자리에 앉으려는데 한 소년이 다가와 의자를 뒤로 빼냈다. 앨런은 바닥에 세계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몹시 아팠는지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나 소년들이 모두 웃기 시작하자 앨런도 웃으려고 했다.





“자신 있게 일어서려면 용기가 필요할까요? 물론입니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힘을 구하십시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트 감독, 감리 감독, “자신 있게 일어서라”, 리야호나, 2002년 1월호, 76쪽.

어느새 로셀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교실을 가로질러 그 남자 아이들 앞에 가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런 다음 손을 내밀어 앨런이 의자에 앉도록 도와 주었다. 교실은 조용해졌다. 그녀가 앨런에게 다친 데는 없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후 그녀는 양손을 허리에 짚었다. 그녀는 남자 아이들에게 “재미로 사람을 못살게 구는 건 정말 비열한 짓이야.”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그저 로셀라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음성은 사납거나 화난 것처럼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로셀라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교실에는 적막이 흘렀다. 나는 남자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 궁금했다. 그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도 여자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생님이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한 소년이 앨런을 보고 말했다. “의자를 빼서 미안하다.”

앨런은 손을 맞잡고 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난 친구들이 생겼는 걸.” 그는 로셀라를 쳐다보았다.

그때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다. 아무도 종이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며, 수업은 평소대로 계속되었다. 로셀라가 악보를 들었을 때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차분해 보였다.

우리 반은 연습을 시작했다. 피아노 치는 소리와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로셀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도 겁이 났을 텐데 어떻게 앨런 편에서 줄 수 있었는가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노래를 부르는 로셀라를 바라보고 다시 앨런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용감하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용감하다는 것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

샤르메인 거블러 워노크는 유타 알파인 웨스트 스테이크 알파인 제5와드 회원이다.



새로운 강화 모임 지침이 발표되다

2005년 8월, 제일회장단은 상호부조회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강화 모임을 분기별로 갖고, 강화 활동을 자매들의 필요사항 또는 관심사에 따라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변경은 각각의 단위 조직에게 보다 큰 유연성을 부여하고, 또한 가정 및 가족을 보다 강조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프로그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 및 가사 기술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제일회장단은 언급했다. “강화 프로그램은 자매들이 서로 친분을 쌓고 배우며 고양되는 기회를 갖는 시간이다.”

제일회장단은 강화 모임 및 활동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상호부조회 회원들의 필요사항과 관심사를 알고, 신권 지도자와 상의하고, 활동을 계획할 때 기도하는 마음과 목적 의식을 갖는 것이다. 또한 모든 자매들이 적절히 참여하고 있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은 모든 자매들이 함께 만나기 위한 것이다. 제일회장단은 각 와드나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강화 모임을 일년에 네 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 모임은 일요일이나 월요일

저녁을 제외한 주중에 가져야 한다. 네 번의 모임 중 한 번은 상호부조회의 조직일인 1842년 3월 17일을 기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스테이크나 지방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일년에 한두 번의 추가 모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이들 모임 중 한 번은 상호부조회 총회 연례 방송과 연계되어야 한다.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활동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활동은 비슷한 상황, 필요사항, 또는 관심사를 갖고 있는 자매들을 위한 것이다. 강화 활동은 강화 모임보다는 보다 유연하여, 우정증진 및 지원의 방편 역할을 한다. “이 활동은 안전하고, 편안하며, 흥미있는 분위기로 진행되어 자매들이 가정, 가족 및 개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일회장단은 언급했다.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자매들이 가정, 가족, 다른 곳에서 갖는 책무들



이제 각 단위 조직이 자체의 필요에 따라 강화 활동의 수를 결정하는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

을 행하도록 돕기 위해 활동을 유연하게 유지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 및 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교회 지침서, 제 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201~202쪽*에 나와 있다. ■

마음에 영향을 주는 시청각 자료

윌터 콜리, 교회 잡지

교회의 시청각부는 주님의 음성을 온 백성에게 계속해서 널리 전하는 음향과 영상을 기록한다.(교리와 성약 1:2 참조) 현재의 비디오, 사진, 방송, 인터넷,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 시청각부는 교회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한다.

“기술은 교회가 계속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데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말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그분의 목적을 진척시키고 인류의 공영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신다고 확신합니다.”(“오늘이 우리의 날입니다”,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21~22쪽)

시청각부에게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시청각부의 작업을 보는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복음 원리를 알고, 느끼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인 발전

필리핀에서 레이먼드 루이스 감독의

와드 회원들은 시청각부에서 제작한 지역 훈련 비디오를 시청한 뒤에 초등회를 경건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배웠다.

루이스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초등회 훈련 비디오를 보여준 다음 일요일에 초등회 어린이를 관찰하려고 감독실을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이 공과 교실로 들어가려고 한 명씩 경건하게 줄서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들어갈 때 지도자들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문 옆에 서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비디오에서 본 내용들을 초등회 지도자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리핀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시청각부는 훈련 자료를 준비하고 배부하는 일에서 지역 회장단을 돕는다. 필리핀에서 시청각부는 세 보조 조직 훈련 비디오 세트를 제작하기 위해 지역 회장단과 함께 일했다. 유럽 동 지역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시청각부는 지역 회장단이 화상 회의를 통해 지역 지도자들을 훈련하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시청각부는 또한 회원들에게 지역 집 회소를 청소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DVD를 제작했다. DVD에는 *Hermano Olympio*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첨부되어 있다.

시청각부는 또한 교회 영화에서 사용되는 음성 더빙 작업을 지원한다. 언어



청년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시청각부에 의해 컨퍼런스 센터에서 방송되는 본부 청년 총회를 위해 모여있다.

음성 더빙을 필요로 하는 교회 제작물들은 때때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녹음된다.

예를 들어, 일본, 핀란드, 태국, 브라질, 우크라이나에 있는 스튜디오는 이들 국가들에 있는 성우들의 음성 녹음을 위해 사용된다.

교회 시청각부와 다른 창작 스튜디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전해지는 메시지에 있다. 모든 시청각 제작물에서 그 메시지는 다른 교회 부서 또는 신권 지도자들에게서 나온다. 시청각부의 역할은 그 메시지의 적절한 모양과 느낌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인터넷과 DVD

교회가 세계에서 성장하고 널리 퍼짐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멀리 떨어진 지역과의 통신도 가능하게 되었다.

DVD 및 인터넷의 발명으로 많은 언어로 된 시청각 자료를 교회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일이 한결 쉬워졌다.

한 장의 DVD는 같은 연차 대회에 대

해 제작된 수십 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대치할 수 있다. 비디오 테이프에서는 오직 한 가지 언어로만 더빙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텔레비전 포맷에 따라 적절하게 맞추어야 했다.

한 장의 DVD에는 최대 26개의 언어 번역을 담을 수 있다. DVD 포맷은 또한 새로운 국제 비디오 표준으로, 국제적인 텔레비전 표준에 맞추어야 할 필요를 없애주었다. DVD 재생기가 전세계적으로 교회 집회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는 현재 기존의 비디오를 DVD로 변환하고 있다.

DVD 기술과 더불어, 인터넷 또한 방송과 양방향 훈련을 전달할 수 있는 고기능 양방향 매체로 판명되고 있다.

최근에 시청각부는 청년 및 초등회 보조 조직을 위해 양방향 온라인 훈련 공과를 디자인하는 일에도 왔다. www.lds.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들 공과들은 수천 명의 회원들에게 양방향 훈련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시청각부의 매체 디자인 및 제작 부서 책임자인 데이비드 닐슨은 시청각 자료를 전하기 위해 교회가 인터넷과 DVD를

사용하는 정도가 장래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4월 및 10월 연차 대회는 시청각부가 관여하는 제작물 중에서 가장 널리 시청되는 두 가지이다. 연차 대회는 생방송을 통해 97 퍼센트의 교회 회원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 나머지 3 퍼센트의 회원들은 대회가 끝난 뒤에 DVD로 대회 실황을 볼 수 있다.

연차 대회를 위한 준비에는 많은 기술자들이 참여한다. 카메라와 텔레프롬프터 기사, 음향 담당자, 프로듀서, 사진사들

은 수십 대의 카메라, 여러 상황실, 음향 시스템, 그리고 통역과 미국식 수화, 대회 및 기타 방송용 자막 처리를 위한 시설의 준비를 돕는 시청각 팀의 일부에 불과하다.

연차 대회 이외에도, 시청각부는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원격 스테이크 대회, 전세계 훈련 모임, 상호부조회 및 청년 총회, 성전 헌납식을 방송한다.

영화

시청각부의 가장 유명한 제작물은 *The Testaments of One Fold and One Shepherd*와 같은 교회 영화이다. 교회



배우들이 조셉 스미스와 회복에 관한 새로운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에 조셉 스미스와 에머 스미스 역을 연기하고 있다.

영화는 제일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제작되며,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교회 영화 스튜디오에서 주로 만들어진다.

스튜디오는 브리검 영 대학교 프로보 캠퍼스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여러 채의 시멘트 블록 건물, 그리고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있는 뉴웰 케이 휘트니 상점의 복원 가옥을 포함하여 1800년대 초기 스타일을 복원한 건물 세트가 약 30,000 평 넓이의 산림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할리우드 스튜디오와는 달리 교회 스튜디오는 그 장비를 임대하지 않는다. 스튜디오 시설에는 금속 작업장, 목공 작업장, 여러 채의 음향 녹음 스튜디오, 의상 창고 지역이 포함된다. 영화의 배경은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Legacy 및 *The Testaments of One Fold and One Shepherd*와 같은 장편 교회 영화의 상당 부분이 이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다. 곧 공개 예정인 조셉 스미스에 관한 교회 영화의 여러 장면 또한 이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다. 모든 교회 영화의 편집은 전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연차 대회의 모임 사이에 나오는 짧은 비디오 장면들 또한 이 곳에서 제작된다.

엔지니어링

조셉 스미스에 관한 새로운 영화가 조셉 스미스 기념관에서 개봉될 때, 시청각부는 영화 뿐만 아니라, 그 영화를 상영하는 영사 시스템도 제작할 예정이다.

시청각부의 엔지니어링 부서는 시청각부의 제작물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만든다. 때때로 이 과정에는 기존의 기술을 수정하는 일이 포함된다. 때로는 특이한 시스템을 디자인하여 특허를 내는 일도 포함된다.

교회는 엔지니어링 부서가 만든 시스템에 대한 여러 건의 특허를 현재 갖고 있다. 엔지니어링 부서는 성전 의식 발표, 교회 사적지 전시물, 방문자 센터 전시물을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새로운 방문자 센터 전시물인 God's Plan은 세 곳의 방문자 센터에서 현재 상영 중인 시청각 제작물이다. 규칙적인 간격으로 전시물은 가족의 영원한 본질에 관한 메시지를 보여준다. 소규모 방문객들을 이끄는 자매 선교사가 원격 조종을 통해 버튼을 눌러 조명을 어둡게 하고 영화를 시작할 수 있다.

가족에 관한 메시지가 서라운드 사운드 속에서 플라즈마 스크린 텔레비전에 상영된다. 방문자들은 집처럼 생긴 구조물을 마주한 벤치에서 관람한다. 전시물은 다양한 언어로 상영된다.

엔지니어링 부서는 God's Plan 전시물에 필요한 기술의 많은 부분을 디자인 했는데, 이는 그런 기술들을 상업적으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방문자 센터에는 이 전시물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는 성전 디자인이 시청각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성전 설계자들과 밀접하게 일하는 것이 포함된다. 시청각 엔지니어들은 또한 새로운 성전이 헌납되기 전에 시청각 설비를 설치한다. 엔지니어들은 주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재평가하여 성전 시청각 설비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단순화하고, 지역의 성전 스태프들이 최소한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모니터하고, 그 능력을 평가하여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것들을 주의깊게 채택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시청각부의 엔지니어링 부서 책임자인 린 해드필드는 말했다.

시청각부의 불거리와 음향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간증할 때,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꿰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을]”(교리와 성약 1:2) 것이라는 주님 예언의 성취를 시청각부가 돕는 것이다. ■

아프리카에 조직된 두 개의 새로운 선교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아프리카에 두 개의 새로운 선교부를 조직한다고 발표했다. 가나 케이프코스트 선교부와 우간다 캄팔라 선교부가 2005년 7월에 조직되었다. 이 두 새로운 선교부로 인해 전세계의 선교부 수는 341개가 되었다.

가나 케이프코스트 선교부

가나 케이프코스트 선교부는 과거에 아이보리코스트 아비장 선교부에서 담당하던 국가들에서 만들어졌다. 새 선교부는 토고, 베냉, 카메룬,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가나의 서부 지역을 포함한다.

가나 케이프코스트 선교부에는 가나 케이프코스트, 가나 쿠마시, 가나 타코라디 스테이크 그리고 가나 아신포스 및 가나 스웨드루 지방부에 속한 13,590 명의 회원이 포함된다. 2005년 7월 1일부터 아이보리코스트 아비장 선교부의 회장으로 봉사를 시작하도록 올해 초에 부름을 받았던 린제이 토마스 딜 회장이 새로운 선교부의 회장으로 재지명되었다.

아이보리코스트 아비장 선교부의 새로운 회장은 노베르트 칼로고 오운레우 형제이다. 이 선교부는 현재 아이보리코스트만을 담당하며, 아비장과 아보보 스테이크에 속한 9,149 명의 교회 회원을 포함한다.

또한 새로운 선교부의 조직은 가나 아크라 선교부의 경계에도 영향을 준다. 가나 아크라 선교부는 현재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가나의 동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재조정된 경계에는 가나 아크라 크

리스틴보그와 가나 아크라 라테비오코르 시에, 라이베리아 몬로비아 스테이크, 그리고 가나 아보모수, 가나 코포리두아, 시에라리온 보 지방부,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지방부에 속한 19,151명의 회원을 포함한다.

우간다 캄팔라 선교부

우간다 캄팔라 선교부는 우간다와 에티오피아를 담당한다. 랄프 엘 듀크 형제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선교부에는 우간다 진자 및 우간다 캄팔라 지방부에 속한 3,959 명의 회원이 있다.

과거에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를 포함하던 케냐 나이로비 선교부는 이제 케냐와 탄자니아를 담당하게 된다. 선교부에는 케냐 나이로비 스테이크와 케냐 치유루 지방부에 속한 6,099 명의 회원이 포함된다. ■

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한결 같은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한 교회, 즉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한결같이 우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선교사 봉사”,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일, 21쪽)

이러닝은 회원들이 부름과 관련된 기술과 책임을 배우도록 돕고 있다.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외에도, 온라인 훈련에는 양방향이고 멀리까지 미치며 유연하다는 점을 포함하여 여러 장점들이 있다.

양방향

이러닝 교육은 양방향 슬라이드쇼 형태로 주어진다. 이런 교육에는 비디오 및 오디오 클립, 적용 질문, 연습 시나리오, 양방향 대화, 훈련 주제와 관련된 제언이 담긴 표와 차트를 포함한다.

최근에 초등학교와 청년 보조 조직을 위해 발표된 훈련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양방향 기술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교회 시청각부의 이러닝 관리자인 스티브 브림리는 이런 기술들이 여러 과정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교육 내내 사용자들의 관심을 이끄는 데

양방향 온라인 훈련이 전세계 곳곳에 있는 회원들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러닝(e-learning): 교회 회원을 한결같이 훈련시킴

월터 콜리, 교회 잡지

이러닝 기술이 교회의 당면 과제들 중 하나를 해소하기 위한 도움을 주고 있다. 전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 있는 다양한 교회 회원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갖고 훈련시키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2002년 9월에 제일회장단은 위성을 통한 연례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에서 교회의 교리와 원리를 지역 차원에 적용하기 위해 지역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 1회 전세



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침서와 다른 자료들을 읽는 것 이외에도, 회원들은 그들의 부름과 관련된 일을 하는 방법, 예를 들어 교회 감사 양식의 기재법, 개인 발전 기록부에 관해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법, 음악 지휘 방법 등을 보여주는 양방향 교육을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우리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단순히 해야 하는 일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교회 회원 및 통계 기록부에서 교육 기획자로 있는 브랜든 브라운 형제는 말했다.

교육에 있어서 시각적 접근은 교회 교육 기획자들이 문화, 경험, 학습 스타일이 천차만별로 다양한 회원들에게 개념을 가르칠 때 특히 유용하다.

교회 음악 사이트와

www.providentliving.org와 같은, 교회에서 초기에 사용한 이러닝이 특정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제공했음이 판명되었다.

“이러닝이 훈련의 확실한 한 형태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실행 가능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있음을 이런 사이트들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교회 시창각부의 미디어 디자인 및 제작 부서 책임자인 데이비드 닐슨 형제는 말했다.

멀리까지 미침

새로운 기술과 인터넷 이용의 확대에 따라 회원들이 이러닝을 접하는 것이 가



회원들은 이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 훈련을 접할 수

있다.

능하게 되었다. 현재 이러닝 과정은 www.lds.org에 게시되어 있어, 회원들은 집에서 개인 컴퓨터를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가족 역사 센터가 있는 집회소에서는 인터넷 접속 또한 가능하다. 약 4,400개소의 가족 역사 센터가 전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다.

유연성

이러닝의 장점 중 하나는 유연성이다. 이러닝에서는 사용자들이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닝이 지닌 유연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일정에 따라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닐슨 형제는 말했다.

훈련 교육은 평균적으로 15분 동안 계속된다. 회원들은 각 교육을 원하는 횟수 만큼 볼 수 있다.

또한 인쇄된 지침서와 같은 훈련 형태

와는 달리, 전자 훈련 교육은 신속하게 업데이트될 수 있다. 이러닝에서의 업데이트는 현재 시행되는 교회 절차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 총관리 역원이 주는 새로운 비디오 클립 또는 오디오 지침을 슬라이드 쇼에 추가하여 정책이나 절차의 변경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러닝 교육은 또한 필요가 발생하면 번역될 수도 있다. 교회 서기와 감사자를 위한 온라인 훈련이 현재 14개국어로 번역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첫번째 달 동안에 번역된 훈련 교육이 서기 및 감사자 훈련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교육에 속해 있었다.

결과를 얻음

교육물 가운데 많은 것들이, 회원들이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에게서 받을 수 일대일 개별지도 방식을 모방하고 있지만, 이러닝이 지역의 와드 및 지부에서 제공되는 개인적인 교육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닐슨 형제는 말했다.

“이러닝이 총관리 역원이나 지역 신권 지도자들이 주는 생생한 가르침을 결코 대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닐슨 형제는 말했다. “하지만, 회원들이 집이나 교회 건물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러닝이 효과적인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과 온라인 모두에서 훈련은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회원들의 일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핑클리 회장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도록 책임을 맡기신 이 일보다 더 긴박한 일은 없습니다.”(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

일, 21쪽) 기존의 온라인 훈련을 lds.org 의 ‘Serving in the Church’ 편에서 또는 여러분의 언어로 된 lds.org에서 접속할 수 있다. ■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펭귄을 위해 옷을 만든다

뉴사우스 웨일즈의 코프하버 지부에 속한 일단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필립 섬에 있는 쇠푸른이펭귄(fairy penguin)의 도움 요청에 응하여 뜨개바늘을 꺼냈다.

“이 지역에서의 자연 보존 운동에는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펭귄의 재활을 위해 털실 스웨터가 필요합니다. 석유 유출로 매년 많은 펭귄들이 죽는데, 기름이 펭귄의 날개에 해를 끼쳐 중독되고 또한 익사하기가 쉽습니다.”라고 코프하버 지부의 매리온 브라운 형제는 말했다.

호주 본토와 태즈메니아 섬을 갈라놓은 배스 해협은 주요 항해로이다. 가끔 일어나는 해상 사고가 쇠푸른이펭귄(fairy penguin)-세계에서 가장 작은 펭귄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에게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펭귄 스웨터는 태즈메니아 주변의 주요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석유 유출 대응 키트에 보관된다. 석유 유출 발생시에 어린 펭귄들은 대체로 너무 아파서 물이나 연한 세제로도 닦아줄 수가 없고, 세계 문지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대신에 구조자들은 석유로 뒤범벅이 된 새를 양모 스웨터 속으로 살살 집어넣는데, 이렇게 하면 새들이 부리로 날개를 다듬고, 나아가서는 새들이 필요한 기력을 얻을 때 석유에 포함된 독성 물질을 삼키는 것을 막아준다. 스웨터는 또한 펭귄의 생존을 위한 단열과 방수에 필요한(하지만 세정시에 제거된) 생체 기름을 펭귄이 다시 만들어낼 때까지 그들의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지역 사회를 강화시킴

국 제도에서의 사이클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여러 주에 걸쳐 닥친 다섯 개의 사이클론은 국 제도의 교회 회원들에게 다른 회원들 뿐만 아니라 넓게는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주섬인 라로통가와 인근의 섬들 모두에서 가옥과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가 있었지만 회원들은 질서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했다.

교회는 푸카푸카에 식품과 물을 공급했다. 건축 자재와 회원들을 동원하여 아이투타키에서 한 채의 가옥 지붕을 보수하고, 두 채의 다른 가옥의 완전 재건축을 도왔다. 라로통가에서는 많은 가옥들이 교회가 공급한 자재와 신권 노력을 통해 수리되었다.

이 외에도 교회는 휠체어와 보행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라로통가에 있는 테우키오우 학교에 대형 특수 패드의 설치를 위한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종교 교육원이 주말 봉사를 통해 기념하다

대학교 학기 사이의 방학 동안, 해밀턴의 세 개 스테이크와 독신 성인 와드는 종교 교육원의 다음 학기 등록에 초점을 맞추었다. 종교원 주간의 주제는 “조셉

스미스와 젊은이-가치관에 충실하지”였다. 함께 어울려 서로를 만나는 개회 활동 후에 봉사 활동이 이어졌다.

최우선 프로젝트가 템플뷰 커뮤니티 바로 서쪽의 해몬즈 부쉬에서 있었 는데, 그곳은 로저 해몬 장로와 자매가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곳이었다. 독신 성인들은 종교원 동산으로 알려져 있는 곳에 토종 나무를 심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해밀턴시티 평의회를 위한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서 독신 성인들이 템플뷰 스테이크의 다른 회원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와이카토 병원의 어린이 병동을 위한 켈트 제작과 보드라운 장난감 기증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독신 성인들은 이 활동 동안에 29개의 켈트와 네 자루 분의 촉감이 보드라운 장난감을 병원에 기증했다.

장난감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에이미 하워드는 최근에 병원에서 아들과 함께 있었던 일로 인해 어린 환자들에게 뭔가 신나는 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은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고, 퇴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하나 골라 집으로 갖고 갈 수가 있다.

2006년 1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
이 리아호나 2006년 1
월호에 게재된 함께 나
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추가 제언들이다. 이러한 제언
에 부합되는 공과, 교육 및 활동을 위해,
이번 호의 어린이란 4~5쪽에 나오는 “경
전에 있는 약속들”을 참조한다.

1. 다음 성구와 그림을 사용하여 하나
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들
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개념을 강화한다.
그림들을 임의의 순서로 방 안에 놓는다.
여러분이 성구를 읽을 때, 어린이들이 어
떤 약속이 주어졌는지를 듣게 한다. 주님
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었거나 이를
것인지를 토론한다. 한 어린이에게 해당
되는 그림을 선택하고 그것을 교실 앞에
놓게 한다. 노래나 찬송가를 하나 부른
다. 다음 성구와 그림과 노래를 갖고 반
복한다. (1) 니파이후서 25:21(기록들이
보존될 것임), 복음 그림 패킷 406(조셉
스미스가 금판을 받음) (2) 아브라함서
2:9~11(신권이 모든 나라에 전해짐),
복음 그림 패킷 408(멜기세덱 신권의 회
복) (3) 니파이전서 2:20(니파이가 순종
한다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임), 복
음 그림 패킷 304(약속의 땅에 도착한
리하이와 그의 일행) (4) 요한복음
14:26(성신이 우리를 위로할 것임), 복
음 그림 패킷 602(성신의 은사) (5) 교리
와 성약 89:18~20(지혜의 말씀의 축
복), 복음 그림 패킷 114(왕의 고기와 술
을 거절하는 다니엘) (6) 교리와 성약
109:13(성전의 축복), 복음 그림 패킷
502(솔트레이크 성전) 또는 여러분 지역
에 있는 성전 사진.

2. 성취된 약속에 관한 성구에 나온

예를 활용하여 교리와 성약 82편 10절
을 여러분의 말로 설명한다. 어린이들에
게 교리와 성약 82편 10절을 펼치게 하
고,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명확한 행동
을 요구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주님이 요
청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그분은 약
속에 따라 우리를 축복하신다. 성구를 표
시하고, 토론하고 암기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분, 170~171쪽) 어린이들을
대여섯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공
주머니 하나를 준다. 여러분이 노래 또는
찬송가를 부를 때, 각 그룹에 있는 어린
이들이 그룹 중에서 공 주머니를 던지게
한다. 음악이 끝나면, 각 그룹에서 공 주
머니를 갖고 있는 어린이에게 주님의 약
속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이번 주에 그
어린이가 행할 일을 한 가지 말하게 한
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 게임을 계
속한다. 충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훌륭
한 약속에 관해 간증한다. “난 하나님의
자녀”(어린이 노래책, 2~3쪽)를 부른다.

3. 노래 발표: “경전의 힘”을 부른
다.(2006년 함께 나누는 시간과 어린이
성찬식 발표를 위한 개요 참조) 구주의
그림을 치켜들고,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듣게
한다. “내 구주 예수 닮기 원하기 때문에
주 경전 매일 읽고 따라 생활하네
(Because I want to be like the
Savior, and I can, I’m
reading His instructions, I’m
following His plan.)”를 부른다.
여러분의 경전을 치켜들고, 어디
서 그분의 가르침을 읽을 수 있
고, 또 어디서 그분의 계획을 찾
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도우미
들이 그림과 경전을 들고 있는

동안 그 가사들을 다시 부른다. 어린이들
에게 “그 말씀 권세 내게 임하기 원하니
(His word will give to me)” “그 말씀”
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한다. 그
런 다음 두 손으로 여러분의 경전을 치켜
들고서 가사 전체를 노래한다. 그분의 말
씀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설명한다. 그
부분까지 노래하고, 여러분이 ‘힘’ 이라는
말을 노래할 때, 두 손으로 여러분의 경
전을 치켜든다.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말
한다. “나는 생활 속에서 경전의 힘을 원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바꿀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듣고 내게 말해주십
시오.” 다음 가사를 노래한다. “주 원하
시는 대로 살아 가리라(I’m changing
how I’ll live, I’m changing what I’ll
be.)” 답을 구한다. 그런 다음 그 줄을 함
께 노래한다. 가사 전체를 선창하면서 어
린이들을 이끈다. 여러분이 합창 부분을
노래할 때 ‘힘’ 이란 낱말을 어린이들이
몇 번이나 듣는지를 손가락으로 세게 한
다. 합창 부분을 여러분과 교대로 노래한
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경
전 권세”라고 노래하면, 여러분은 “나를
지키시”라고 노래한다. 그런 다음 초등학교
어린이의 반은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도록
하여, 나머지 어린이들과 교대로 노래한
다. 경전에 관한 여러분의 간증을 전한
다. ■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2006년 1월 1일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 교회의 힘과 성장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2005년은 한국 교회에 놀라운 해였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과 함께 한 한국 교회 50주년 기념 행사는 특별하고 주목할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념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귀환 선교사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올해 교회의 한국어 명칭에 대한 선지자의 지시를 받았고, 새로 번역된 경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국 교회가 더욱 성장하리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우리의 가족이, 또한 개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받는 축복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송평중 회장님과 양계영 자매님이 부산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 받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힘과 성숙도를 보게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의 모든 선교부 회장님들과 그들의 부인, 그리고 선교사들의 봉사에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국에는 강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스테이크 회장님들과 배려심이 깊고 인정많은 감독님들이 계십니다. 훌륭한 이 주님의 종들은 고대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부름대로 성도들을 가르치며 성역을 베푸는 지도자입니다. (제3니파이 26:19 참조) 이들은 우리 자녀들과 교회 청소년들에게 손을 내밀어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합니다. (교리와 성약 81:5)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선교 사업을 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하지 않은 모든 청년들과 청년 독신 형제들이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을 만나 선교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권유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이 귀중한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 여러분, 아직 봉사하지 않은 분들께 손을 내밀어 그 분들이 합당하게 봉사할 준비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매님들이 선교 사업에 대한 의무감을 젊은 형제들처럼 느낄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한 나이이며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는 지속적인 소망을 지니신 모든 자매님들은 감독님이나 스테이크 회장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셨거나 은퇴 연령에 가까운 모든 활동적인 부부들은 선교 사업을 하기에 좋은 때가 아닌지 고려해 보시도록 권유합니다. 부부 선교 사업은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집에 거주하면서 봉사할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부름받아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 본부, 성전, 교회 교육 기구, 그 외 다른 곳에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감독님이나 스



테이크 회장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여러분, 부부들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은퇴했거나 은퇴 연령에 가까운 부부들에게 먼저 다가가 부부 선교 사로서 봉사할 필요성과 봉사에 따르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젊은 부부들이 주님의 위대한 사업에서 다시 한 번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고대하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고 있으며, 우리는 한국에 성전들이 더 지어질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 참석하여 그로 인해 오는 축복을 받고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과 희생을 하려는 더욱 큰 소망이 회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완전한 십일조를 내고 있으며 그들의 선한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기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힝클리 회장님께서 주신 권고를 통해 어쩌면 한국 교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교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몰몬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몰몬경의 참됨에 대한 간증과 이 위대한 경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우리는 강화되고 우리 가족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몰몬경이 참되다는 간증을 전해 드리며 힝클리 회장님의 권고에 따름으로써 오는 축복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힝클리 회장님과 함께 이 놀라운 책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힝클리 회장님께서 “계속 읽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역 회장단은 한국에서의 사업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사업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사업을 충실히 기쁘게 행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6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 복음은 참됩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간증 드립니다. 이 사업의 놀라운 시기에 함께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주님의 가장 높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진실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윌리엄 알 워커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고원용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을 소개합니다

한국과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감리하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이 새로 부름받았다. 위성 중계되었던 스테이크 대회와 각 지역의 노변의 모임을 통해 회원들과의 만남을 시작한 회장단은 윌리엄 알 워커 회장과 제1보좌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제2보좌 고원용 장로로 이루어져있다. 지역 회장단은 제일회장단의 지명으로 선지자를 대신하여 한국에서 펼쳐지는 모든 교회 사업을 감리하며, 회원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생활하도록 권고와 모범을 주는 우리의 지도자들이다.

Elder William R. Walker

윌리엄 알 워커 장로

워커 장로가 세상에서 처음 맞이한 날은 1944년 5월 25일로, 캐나다 서부 앨버타가 고향이다. 앨버타는 2,000명 남짓한 사람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후기 성도 개척자 농부들이었다. 워커 장로의 할아버지도 그 개척자 가운데 한사람이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그 지역 스테이크 회장이었고 마을의 의사였던 아버지는 감독단으로 봉사했다. 워커 가족은 말 그대로 대가족이다. 아버지는 열두 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열세 남매 중 막내인 어머니와 결혼하여 워커 장로에겐 87명이나 되는 사촌들이 있다. 충실하고 강한 후기 성도 가정에서 자란 워커 장로는 일곱 남매 중 둘째다.

어릴 때부터 어느 것이나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던 워커 장로에게는 여러 가지 취미가 있었다.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야구, 농구 및 육상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또 저는 춤도 좋아했고 몇 번인가 춤 경연 대회에도 나갔습니다. 작년에 열린 문화의 밤에서 아름다운 무용 공연을 보며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등 학교 시절 클라리넷과 색소폰을 연주하기도 했고 댄스 밴드도 결성했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교회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에 가서 연주하곤 했습니다.”

BYU에서 국제 정치학을 전공한 워커 장로는 여러 회사에서 투자 사업에 관련하여 일했다. 은퇴하기 전까지 바클리 은행에서 투자 펀드 사업의 전세계 총괄 판매 책임자로 일했고 수년간 베네피셜 생명 보험 회사 투자 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활발한 사회 활동 못지않게 교회 안에서도 꾸준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했다. 스무 살이 되어서 전임 선교사 부름을 받아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했고,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에서 두 차례 감독으로 봉사했다. 1990

년에 일본 도쿄 남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아 다시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했고, 그 후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중 2002년에 칠십인 제2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1년간 북미 중부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한 후, 2003년에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으로 지명되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2005년에 북아시아 지역 회장으로 성임되었다. 수많은 부름 중에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라고 한다.

대학 시절, BYU 학생 와드에서 그의 말해 의하면 “길고 윤기 나는 붉은 머리와 아름다운 푸른 눈”을 가진 워커 자매를 만나 결혼하였고 다섯 명의 자녀와 열네 명 손자를 두었다.

“한국에 와서 훌륭한 한국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분들의 깊은 헌신과 신앙을 느꼈습니다. 저는 위대하신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며, 그분이 한국의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압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Elder David F. Evans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난 에번즈 장로는 1951년 8월 11일 생으로, 두 살 때 캘리포니아 주 L.A로 이사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 살면서 부모님은 다섯 명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데리고 바다 나들이를 즐겼고, 그 덕에 어릴 때부터 바다와 모래사장에서 하는 놀이에 익숙하다.

“물이 매우 차가웠지만 바다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집 근처 모래 언덕에 많이 사는 도마뱀 잡기도 좋아했습니다. 좀 더 크면서 수상 스키와 스키, 등산과 낚시를 즐겼고 지금도 야외를 좋아합니다. 현재 제 취미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일들로, 우리는 함께 수상 스키와 스키를 타고 캠핑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에번즈 장로의 삶에 의로운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이다. “아버지의 특성 중 하나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무엇이 옳은지 가르치신 후에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대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 봉사했던 어머니를 에번즈 장로는 이렇게 기억한다.

“매우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훌륭한 문학 작품과 경전을 읽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화를 내셨던 기억이 없습니다. 때로 제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실망하셨는데, 그것은 화를 내시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에번즈 자매를 만난 것은 대학교 한 사교 모임이었다. 그 후 같은 수업을 듣게 되었고, 일본으로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까지 9개월 동안 데이트를 했다.

“복음에 충실히 생활하라는 그녀의 격려는 제가 선교 사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우리는 자주 편지를 하며 서로를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신앙

덕분에 귀환한 후, 당시 우리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앙과 사랑 덕분에 우리가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봉사하는 동안에도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라면 우리는 가족으로서 복음에 충실히 생활하고 성전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번즈 장로는 3남 5녀를 두었고, 올 봄에 태어날 아기까지 모두 열 명의 손자들이 있다.

유타 대학에서 지역 보건 교육학을 공부하고 BYU 제이 루벤 클락 법대를 졸업한 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칠십인으로 부름 받을 당시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투자 금융 회사의 공동 경영자를 맡고 있었다. 교회에서 그의 아버지처럼 소년단 대장으로 봉사하기도 했고, 솔트레이크 선교 본부 교사와 스테이크 선교 회장, 집사 정원회 고문, 스테이크 청남 회장, 감독,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등을 역임했다.

“복음은 참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간증이자 삶이며 사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개개인을 아시며 우리 각각의 삶에 복음의 축복을 모두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오는 새해에 많은 회원들, 그리고 회원이 아닌 분들과 함께 이 간증을 나누는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lder Ko Won Yong

고원용 장로

한국이 광복을 맞고 두 달쯤 후인 1945년 10월 15일(음)에 고원용 장로가 태어났다. 통영이 고향인 아버지와 부산 태생인 어머니는 당시 부산에서 살고 있었고, 네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다.

활동적인 성격인 고원용 장로는 학창 시절에 축구와 농구, 배구 등 큰 공으로 하는 운동은 모두 좋아했고, 산을 타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서 전국 일주를 세 번이나 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여 전기공학을 공부할 때는 신문사 활동에 매료되어 공대신문 주간, 서울대학신문 학생 편집장 등을 맡아 대학 시절 대부분을 신문사 일로 보냈다. 그래서 막상 졸업식에서 공학사 학위증을 받을 때는 무척 어색해했다고 한다.

지역 회장단 중 유일한 개종자인 고 장로는 청소년 때 침례를 받았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이 끝난 직후 같은 반 친구가 소개를 해서 호기심으로 따라갔는데 회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 주었는지 ... 거기에 감동하여 선교사와 함께 토론을 하게 되었고 2개월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그 때 받았던 친절함을 새로 오시는 회원이나 구도자에게 전해 주고 있는지 돌아보곤 합니다.”

고원용 장로는 청남, 독신 시절에 교회에서 했던 연극, 로드쇼, 민속 무용 등의 활동들은 어디에 내 놓아도 부럽지 않다는 자부심이 있다. 고 장로의 실력은 군에 입대한 후에도 빛을 보았다.

“교회에서 민속 무용을 한 덕분에 군대에 가서 말단 신참인데도 민속 무용 대회 대표로 뽑혀 우리 부대 대표팀을 지도했습니다. 연극을 준비하여 수도 육군 병원에 위문 공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젊은 시절의 하이라이트는 1975년 최초의 한국 대회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을 때 문화의 밤 행사 연출을 맡은 것이다. 고원용 장로는 “이 때의 경험이 한국 교회 헌남 50주년 행사를 치뤄내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열정적인 고 장로에게 교회에서 하는 봉

사 역시 설 새 없었다. 6년 여 동안 서울 동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고, 2년간 홍콩 지사에서 근무하고 귀국한 후, 1988년부터 지역 대표와 지역 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했다. 모든 부름이 다 축복된 기회였지만 가장 감사해하는 부름은 서울 스테이크 집행 서기로 봉사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에 스테이크가 처음으로 조직되어 교회 지침이나 원리에 대하여 새로이 배워야 할 것이 많았는데, 집행 서기의 주임무 중 하나가 바로 교회 지침서를 연구하여 스테이크 회장단과 역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군 제대 후, 한국 IBM에 입사하여 28년간 재직한 고 장로는 퇴직 후에 한진 정보 통신 대표 이사로 3년간 근무하다가 은퇴 후에는 교회 부름에만 전념하고 있다. 고원용 장로는 김은희 자매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다.

“회원 여러분에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간증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하늘에 하얀 입김을 흩뿌리며 두꺼운 책 꾸러미를 안고 가는 아이들. 우리의 보물인 청소년들의 새벽은 항상 세미나리로 시작한다. 무심코 대하는 아침 해는 경전을 읽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예은 자매입니다. 저는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에 다니고 있고, 올 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새벽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요일 아침만 빼고 모든 평일 아침 6시 30분에 세미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신약을 배웠는데 두 번째 배우는 거라 이번에 배울 때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아빠는 중3인 언니와 저에게 세미나리를 가르치기로 결정하셨고, 그 후로 계속 새벽에 세미나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가르치는 세미나리는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아빠는 재미있게 가르치십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옛날 이야기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평소에는 일 때문에 늦게 들어 오셔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아침마다 무척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서 좋았습니다. 올 해 배운 신약은 두번째 배우는 거라 조금 처음 배울 때보다 더 이해하기가 쉬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가장 재미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서 비교해서 배울 때 재미있었습니다. 고3이 되어서도 오랫동안 습관처럼 했던 거라 세미나리하는 것이 특별히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도 풀고 신앙도 키우고 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리 덕분에 고3 생활을 더 수월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동생들도 모두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축복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은 엄마입니다. 엄마는 제가 고3이 되고 나서 정식으로 세미나리 교사 부름을 받아 아빠를 이어 저희를 가르치십니다. 요즘은 저희 와드 친구들도 같이 합니다. 엄마는 세미나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쪽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셨습니다. 밤 늦게 잠을 자지 않고 뭔가 하고 있을 때 꼭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 “예은아, 잠 자야지. 그래야 내일 세미나리하지 ...” 정작 엄마는 밤 늦게까지 세미나리 수업을 준비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로 타자를 쳐서 따로 자료를 만들어 주십니다. 엄마를 보면서 나도 나중에 엄마가 되면 내 자녀들한테 저렇게 해줄



세미나리를 마치고 나온 구예은(오른쪽) 자매와 동생 구예경(왼쪽) 자매.

수 있을까? 생각하며 저도 그런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어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미나리는 한마디로 하자면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것은 다 있습니다. 경전 공부도 하고 신앙을 키울 수도 있고 부지런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경전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복음이 참되다는 증거를 찾아봐야겠다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문경을 읽으면서 명확한 답이 나온 구절을 찾고 싶었는데 기대했던 구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무척 기뻐했던 기억입니다. 힐라맨서 3장 35절을 가장 좋아하는데 후기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표본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저도 그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주 기도하고 겸손하여져서 성결하게 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선교 사업의 시작점 서울 선교부에 가다

한국 지역 헌납 50주년 기념 행사에 눈코 뜰 새 없었던 지난 해를 뒤로 하고 2006년, 한국 교회의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하며 리아호나는 이 땅 방방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한국의 네 개 선교부를 방문한다. 2006년 첫 번째로 리아호나와 회원들을 초대할 곳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선교부다.



1960년대 한국 선교부의 모습. 앞줄 왼쪽에서 네번 째 자리에 초대 선교부 회장인 게일 에프 카 회장이 앉아 있다.

한국 최초의 선교부

1962년 7월, 한국 땅에 처음으로 조직된 선교부의 이름은 '한국 선교부'였다. 온 한국 땅의 선교 사업을 한국 선교부가 담당했다. 당시 초창기 한국 교회처럼 젊은 33세의 게일 에프 카 회장이 초대 한국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았고, 삼청 지구 자리에 본부를 세웠다. 몇 개월 후 본부는 청운동으로 옮겨졌다. 7월 8일에 휘문 고등학교 강당에서 한국 선교부 첫번째 대회를 열었고, 이어 간증 모임과 노년의 모임을 통해 회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선교부는 세 개 구역이 있었는데, '서울 서부-중앙 구역'과, '서울 동부-동대문 구역', '부산-대구 구역'이다. 선교부는 두세 개 와드나 지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 팀을 묶어 구역(District)을 정하고, 두세 개 구역을 묶어 지역(Zone)이라 칭한다. 수년 후에 다른 선교부들이 조직되면서 관한 지역의 면적이 축소되었는데 지금은 서울, 서울 동, 서울 동

대문, 서울 북 스테이크와 강릉 지방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지금 서울 선교부는 5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역은 모두 11개가 있다.

가족 영어 회화의 시작

미국인 선교사가 대부분인 선교부는 영어를 가르치며 구도자를 찾기 시작했다. 영어 회화반은 선교사들이 주민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입으로 듣는 영어가 신기해 교회에 왔다가 더 진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알게 되었다. 지난 2000년에 서울 선교부는 새로운 선교 사업 방법을 고안해 냈는데 바로 '가족 영어 회화'다. 당시 서울 선교부 칼슨 회장은 대부분 어린 아이와 엄마들, 학생들이 참석하는 영어 회화반을 보며 한국의 남성들, 즉 신권을 갖고 감독과 교회를 도울 사람들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다 '가족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영어를 배우고 싶은 가족을 방문하고, 30분 동안 영어를, 30분 동안 복음을 가르치며 구도자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물문경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가족 메시지를 전했다. 이 방법은 한국에 있는 다른 선교부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가족 개종자를 찾는 주요 방법이 되었다.



자매 선교사들이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단지를 건네 주며 가족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선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구도자들이 개종자가 되어 계속 활동하고 교회에 남도록 하기 위해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손잡아야 합니다. 저희 서울 선교부는 2006년에 회원들과 함께 구도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부는 회원들이 많고 튼튼한 조직을 가진 서울 지역과 비교적 작은 조직들이 넓은 지역에 퍼진 강릉 지방부 지역에서 봉사합니다. 강릉 지방부에 있는 지부들은 아주 작습니다. 넓은 지역에 저활동 회원들이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부부 선교사들이 간다면 우리 강릉 지방부는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 선교사들이 지도자를 도와 저활동 회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 회원들이 저희 선교부에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업에 동참할 더 많은 동료들이 저희 선교부에 필요합니다.”

특별한 선교사들

체릉남 장로

언뜻 보면 한국인 같은데 이름을 발음하기가 쉽지 않다. 그는 몽골에서 온 선교사다. 감기가 걸리면 육개장을 먹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진 그는 2003년 2월에 한국에 왔고 지금은 서울 스테이크 홍제 와드에서 지역 지도자(Z.I.)로 봉사하고 있다. 몽골인이 많이 사는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가 첫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지내며 몽골인 구도자를 가르치고 교회 모임을 통역했다. 지역을 떠나 몽골인 구도자들이 있다면 다른 선교부 지역으로 여행하며 일했고, 열두 명의 몽골인 회원이 체릉남 장로를 만나 개종했다. 올 해 1월에 귀환하는 체릉남 장로의 한국말은 아주 유창하다. 개종한 지 3년 반 정도 된 체릉남 장로는 개종하기 전에 갑자기 한국말을 무척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에서 수업을 신청하여 들었다. 많이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얼마 후에 선교사들을 만나 개종하게 되었고, 그 후 일년 반 뒤에 한국으로 전임 선교사 부름을 받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요. 열심히 사는 모습을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의 자연이 좋아요. 언덕을 넘고, 산과 숲 사이에 건물이 모여 있는 게 참 신기해요.”



체릉남 장로와 동반자 플린더스 장로



코우치 장로와 동반자 하퍼 장로

코우치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에서 봉사하고 있는 코우치 장로는 한국 최초의 일본인 선교사다. 한국에서 봉사한 지 7개월 정도 되는 그는 이제 전도할 때 일본에서 왔다고 하면 억박지르는 아저씨들에게 익숙해졌다. 약 1년 전에 ‘한국 서울 선교부’라고 쓰인 부름장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부름장을 실제로 보기 전까지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에 한국과 관계가 많이 좋지 않을 때라 모두들 걱정했죠. 그렇지만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행복하게 해 주실거라 믿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코우치 장로가 선교 사업을 결심하기 전에 그의 와드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봉사하고 있었다. 서울 영동 스테이크 강남 와드 이영문 형제가 귀환

전 석 달을 코우치 장로의 와드에서 봉사했던 것이다. 그 때 이영문 장로와 함께 친하게 지내며 이 장로 같은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어 코우치 형제는 선교 사업을 결심했다. 부름장을 기다리면서 한국에서 봉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슬퍼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봉사하면서 나라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완전히 극복할 수 없겠지만 저를 통해서 서로 좀 더 이해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산 선교부 선교사들, 김치 담그기 대회 우승

지난 해 12월 5일 월요일, 부산 롯데 백화점에서 부산 주부 클럽이 주최한 '외국인 김치 담그기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와 큰 화제거리인 대회 1, 2, 3등을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이 휩쓴 것이다. 터키, 이란, 미국 등지에서 온 20여 명 외국인 참가자 중 맛있게 김치를 담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호주에서 온 에킨슨 장로(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가 1등을, 동반자인 클러프 장로가 2등을, 반함 장로(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가 3등을 차지하였다. 이 대회 기사는 부산 지역 TV 방송과 신문에 기사화되었다. 한편, 수상한 김치맛을 궁금해하는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많았지만 김치가 한포기 밖에 없어서 선교사들은 조금씩 나누어 구도자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한다.(이유열 기사 제공)



부산 지역 신문에 김치 담그기 대회 소식과 함께 선교사들의 사진이 게재되었다.

조셉 스미스 학술 세미나

“조셉 스미스의 세계-21세기를 위한 아이디어”라는 이름의 학술 세미나가 2005년 12월 9일에 서울 홍인동에 소재한 충무아트홀에서 열렸다. 한국 공보 위원회와 브리검 영 대학교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업적과 사상,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한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타 종교계와 학계, 사회 민간 단체, 언론계 인사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 150여 명이 함께했다. 약 다섯 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는 광주 종교 교육원 원장인 임종하 형제가 조셉 스미스의 생과 업적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BYU 교회사 및 교리 교수인 프레드 우즈 형제가 “조셉 스미스의 사상과 가르침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이 축약된 '신앙 개조'와 교회 원리에 대해 발표했다. 한신대학교 및 남서울대학교 강사인 노희정씨는

설문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현 사회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한국 후기 성도들의 가족 가치관에 대해 발표했고, BYU 결혼 및 가족 생활학 교수인 테란스 올슨 형제는 가족 선언문을 설명하며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중 가족에 대한 세계를 소개했다. 각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과 교회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며 토론했는데, 외국인 교육 단체인 월드 스튜던트 가든의 에이브 원씨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문제에 대해 이 교회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물었고, 발표자들은 교회 초등학교와 청소년 프로그램, 가정의 밤을 소개했다. 세미나 휴식 시간과 모임을 마친 후에도 이러한 토론은 대화장 곳곳에서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선 고원용 장로는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전하며 “이제 이 사회는 우리에게 대해 좋은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라며 세미나에 참석한 지도자들과 회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충실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향, 중앙, 세계 일보 등 국내 우수 신문에 기사화 되었다.



세미나 참석자들과 발표자들. 맨 오른쪽부터 임종하 형제, 고원용 장로, 공보 선교사 판즈워스 자매, 판즈워스 장로, 고원용 장로 뒷 줄에 테란스 올슨 형제, 맨 왼쪽에서 두번째에 프레드 우드 형제가 서 있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마산 스테이크

사천 지부 지부 회장: 도재왕(전임: 강지훈)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감독: 김용태(전임: 배상기)

수원 스테이크

평택 와드 감독: 강재성(전임: 권태휘)

안양 스테이크

평촌 와드 감독: 김희영(전임: 최현호)